



내포 도시첨단산단 진입도로 개설 '속도'

토지 보상 77% · 공정률 15% 기록... 내년 71억 투입해 사업 추진

환황해권 중심도시를 꿈꾸고 있는 내포신도시의 또 하나의 대동맥이 될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28일 충남도 종합건설사업소에 따르면, 내포 도시첨단산단 진입도로는 홍북읍 대동리와 홍성을 대교리를 연결하는 3.97km 길이의 신설도로다.

도로 규모는 4차로이며, 교차로 6곳과 교량 2개가 들어선다.

중공 목표는 2022년 2월로, 총 투입 예산은 469억 5500만 원이다.

도 종합건설사업소는 28일 현재 공사 편입 대상 토지 387필지 중 77%에 대한 보상을 마쳤다.

토지 보상 작업은 내년 상반기 모두 마무리 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공사는 통로양거 2개소, 수로양거 2개소 완료, 내포 1교 슬라브 콘크리트 양생 등을 진행, 공정률 15%를 기록 중이다.

내년에는 국비 54억 원과 지방비 17억 원 등 총 71억 원의 예산을 편성, 심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공사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도 종합건설사업소는 이 진입도로가 개설되면 내포신도시와 홍성(홍성역)을 연결하는 광역교통 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항선 철도, 공사가 한창인 서해선 복선전철과 연결돼 내포 도시첨단산단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 진입도로는 또 내포신도시에 대한 민간 부문 투자 활성화를 견인하고, 내포신도시와 홍성을 오가는 차량을 분산시키며 지역 주민의 불편을 덜어줄 것으로 예

상된다. 박일수 도 종합건설사업소장은 "내포 도시첨단산단 진입도로는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 한다는 현 정부의 공약을 뒷받침 할 중요 인프라 중 하나"라며 내포신도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 종합건설사업소는 진입도로 개설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공사 현황 공유를 위해 지역 주민들과 추진상황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김성구기자



제23회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상' 단체부문

충남신보 대통령 표창 수상

충남신보증재단이 사장 유성준, 이하 충남신보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 그랜드홀에서 개최된 제23회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상' 단체 부문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기여도가 큰 기관 및 개인에게 수여하는 포상으로 기관 부문 수상자는 충남신보가 유일하다. 그간 충남신보가 소기업·소상공인의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가다.

충남신보는 지난 1998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약 26만건, 5조 9천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충남내 중소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의 안정과 성장을 지원해왔는데, 특히 세월호, 메르스 등 경제위기 때마다 유동성을 공급하며 서민경제를 안정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고객 니즈에 맞춘 맞춤형 보증제도와 영세한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2-Track 보증지원 체계 도입, 다양한 고객편의 제도 운영 등 세밀한 신용보증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경영컨

설팅, 마케팅 지원 등 비금융분야 지원까지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도 힘써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전국 지역재단 보증 이용률 1위 ▲충청남도 공공기관, 기관장 경영평가 최우수 등급 ▲충청남도 도정을 빛낸 우수 시책 선정 등으로 나타났다.

유성준 이사장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내 중소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의 성장 동력으로서 충남신보증재단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구기자

대전시 장사시설 수급 증장기 계획(안) 마련

장사시설 수급 증장기 계획 수립 연구용역 주민설명회

대전시는 28일 오후 2시 시청 3층 세미나실에서 장사시설 수급 증장기 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날 설명회에서는 ▲ 지난 7월에 실시한 장사시설에 대한 대전시민 의식조사 결과 ▲ 장사시설 유형별 수급 추계 ▲ 장사시설 운영 개선방안 ▲ 장사종합단지 입지선정을 위한 4개 후보지 비교·평가 연구결과를 대전세종연구원 장장수 책임연구원이 발표했으며, 질의응답시간에는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사시설에 대한 대전 시민의식 조사 결과 선호하는 장례방법은 화장(65.9%)으로 나타났으며, 유골처리방법은 봉안당(44.3%), 자연장(43%), 산골(10.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연장 선호도는 2014년 시민의식 조사 대비 14% 증가해 친환경에 대한 관심증대로 자연장의 확충 필요성이 확인됐다.

또한, 장사시설은 새로이 설치하는 것보다는 기존 시설을 보완하는 방안(67.3%)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내 장사종합단지의 설치는 84.7%가 찬성하나, 거주지 인근에 설치하는 72.2%가 반

대하는 것으로 응답해 장사시설은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이나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기피시설임을 확인했다.

장사시설 유형별 수급추계 결과 화장장의 경우 2024년까지는 현재 10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2030년 13기, 2045년 20기의 화장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한 화장로 수요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장사종합단지가 조성될 때까지 화장로 1기당 1일 4회 운영에서 1일 5회로 횟수를 증가시키는 안이 제시됐다.

공설묘지의 경우 신규 설치는 제한하고 기존 공설묘지의 자연장지 조성을 통한 공원으로 부정적 이미지 개선안이 제시됐다.

자연장지는 자연장에 대한 관심 증대 및 이용률 증가 추세를 반영해 추계했다.

현재 자연장지로 2020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2030년 장사종합단지 조성 전까지 1만 2500기, 조성 후부터 2045년까지는 8만 5000기가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다.

만기 규모의 제5봉안당을 건립하면 2045년까지 봉안시설에 대한 장사수요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발표했다.

장사시설 운영개선 방안으로는 화장장 사용료(관내 9만원) 및 봉안당 사용료(관내 20만원/15년) 사용은 타 시도에 비해 저렴한 편으로 향후 사용료의 인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봉안당 사용기간의 경우 타 시도는 대부분 30년인 것에 비해 우 리시는 최대 60년까지 사용이 가능해 효율적인 장사시설의 운영 및 장사문화 개선을 위해 사용기간의 단축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장사종합단지 조성은 이용의 편리성뿐만 아니라 증가하는 장사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대전시에서는 2030년까지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대전세종연구원에서 평가한 장사종합단지 후보지는 우선 기존 장사시설이 조성되었고 확장이 가능한 '서구 괴곡동(이하 대전추모공원)'과, 민간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장사종합단지 조성을 제안한 지역인 '동구 장척동'과 '서구 봉안동', 2001년 사설납골공원 신청 지였던 '중구 구원동'의 4개 지역이다.

김태선기자

세종시 '성폭력·가정폭력 근절' 폭력추방 주간행사

데이트폭력 예방교육 영상상영회 · 성인권영화제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성폭력·가정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폭력추방 주간행사로 28일부터 데이트폭력 예방교육 영상상영회, 성인권영화제를 개최한다.

폭력추방주간은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로, 세종시에서는 지난 2013년 성인권영화제를 시작으로 올해로 6번째를 맞는다는

충남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와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주관으로 펼쳐진다.

먼저 28일 오후 4시 30분에는 충주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상담소 주관으로 충주종합복지센터에서 데이트폭력 예방영상 '그림자'를 상영한다.

이어 29일 오전 10시 세종시민회관에서는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의 주관으로 '영화와 인형

극으로 만나는 성인권'이라는 주제로 성인권영화제가 열린다.

이번 성인권영화제는 한국여성인권영화제 출품작인 '달린 문 뒤에는' 상영 및 가정폭력 예방 특강, 폭력예방 인형극 공연으로 이뤄진다.

시는 이번 폭력예방 주간행사로 오는 12월 11일까지 관내 대학생들과 수능이 끝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인권영화상영과 소감나누기 등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모든 것을 새롭게
All New 하이트

대한민국 No.1 셀링 비어
80년 맥주 제조 노하우
EXTRA DRINKABILITY
CHEERS! KOREA

환황해권 시대 걸맞은 역할 수행 당부

충남도의회 안전해소위, 해양수산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 장승재는 28일 열린 해양수산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심사에서 환황해권 시대에 걸맞은 도 차원의 역할 수행을 주문했다.

안전해소위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심사 규모는 총 1793억 4197만원(2018년 제3회 추경 증가액 6억 1294만원, 2019년 예산안 1787억 2903만원)이다.

장승재 위원장(서천1)은 "간헐도항 개발 등 10개 여항의 계속비 사업은 724억 4400만원이다"라며 "올해 예산액 100억원으로 13.8%를 차지하고 있다. 연차별 계획대로 적기에 사업추진이 마

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익현 의원(서천1)은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이 2억 2400만원 감액 계상됐다"며 "유부도 해양생태환경 기반조성과 고파도리 폐연전복원사업 등의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향후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말했다.

정광섭 의원(태안2)은 "선도어촌체험마을 조성 예산으로 1억 8000만원이 신규 계상되고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원 예산으로 5억원이 계상됐다"며 "지원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 사업 추진의 실효성에 의무인 든다"고 물었다.

김형도 의원(논산2)은 "수산물 안전성 조사 운영 예산 2억원, 수산물 안전성 조사 장비구축 예산 6억이 신규 계상됐다"며 "올해 안전성 조사 장비 구축 예산 20억원 반영 이후 추가 구입해야 하는 장비인진, 안전성 검사 체계 구축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계양 의원(당진)은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 사업 예산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보다 1억 4000만원이 줄었다"며 "감액 사유가 무엇인지,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문제는 없는지,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했다.

조승만 의원(홍성1)은 "수산물 유통 가공 기반 구축 등 수산산업 육성을 위한 수산산업과 예산이 28억 3300만원 감액 계상됐다"며 "수산식품 산업거점단지 조성 예산이 55억 3200만원 대폭 감액 계상된 이유가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정근 의원(천안9)은 "실국별 예산 증감률을 확인해 본 결과 해양수산국은 전년 대비 2.2% 증가에 그쳐 최하위 수준이다"라며 "충남이 표방하는 환황해권 시대를 주도하는 도의 역할 수행과 사업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돌입 대전광역시 동구의회(회장 이나영)는 제233회 정례회 회기중인 2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착수해 올해 한해 동안 집행부의 국정 상황을 점검한다. 동구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에서 추진한 정책과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됐는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세심하게 점검할 것이며, 꼼꼼한 진단을 통해 문제점은 바로잡고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폭행사건 거대노조와 빛진 정부여당이 만들어”

비른미래당은 28일 민주노총 급속노조 폭행사건에 대해 기록된 거대노조와 그노조에 빛진 정부여당이 만들어낸 잔혹한 집단 폭행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비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폭력적인 노조와 무기력한 공권력에 의해 야만적이고 잔혹한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며 "민주노총 급속노조 유성지회 조합원 10여 명이 지난 22일 대표이사 집무실 문을 부수고 난입해, 임원 두 명을 감금하고 이중 한 임원을 시간 동안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구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얼굴뼈가 부러지고 코뼈가 함몰되는 등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가족을 가만 안 둔다"는 노조의 협박에 병원조차 알려주지 못할 정도로 심한 정신적

인 충격을 받았다고 전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경찰의 행태다.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들이 집단 구타에 의해 바닥에 흥건해진 피를 닦고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갈 때까지 체포는커녕 구조 시도도 없이 구경만 했다고 한다"며 "민주노총이 최근 3개월 동안 불법 점거능성을 벌인 관공서만도 대검찰청 청사, 김천시청 등 7곳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결국 기록권이 된 거대노조와 그노조에 빛진 정부여당이 비상식적이고 무법적인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최악의 경제 상황을 취임내고 실업에 모든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지금 '제 밥그릇만 챙기려' 관공서를 점거하고 폭행까지 서슴지 않는 기록권 노조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기관 불법 점거와 집단 구타를 방관·비호하는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이며, 정부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이냐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심각한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면서" 경제가 위기 상황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한다는 노조 본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때"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거대 노조는 집단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총체적 일자리 문제 등 공공의 이익 추구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정부 여당도 노조에 대한 부채의식을 떨쳐내고 정책적 균형을 잡아야 할 것"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에는 진정한 약자를 지키는 노조, 진정한 약자를 돌보는 정부가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회=강철수기자

“행복도시 종합사업관리, 선진화 방향을 논하다”

행복성, 전문가 초청 종합사업관리 세미나 개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은 종합사업관리(PM)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28일(수)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복도시 종합사업관리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외 종합사업관리 동향을 파악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

설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미나는 주제 발표, 종합토론 순서로 진행되었다.

주제발표에서 ▲박장우 서울대학교 교수가 종합사업관리에 대한 국제학회 및 대학 등에서의 최근 연구추세와 발전방향 ▲최재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는

해외업체에서의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관에서의 종합사업관리 전략 ▲이경천 한국전력기(주) 부장은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철도 등 국내 종합사업관리 경험과 UAE 원전 등 해외사업 참여사례 ▲유근호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 행복도시 착공 후 현재까지 수행된 종합사업관리의 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종합토론에서는 각 전문가들의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행복도시 종합사업관리 선진화를 위한 발전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행복청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내·외 사례를 거울삼아 행복도시 종합사업관리 체계를 한 층 더 발전시킬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행복도시를 주민 만족도가 높고 세계인들이 찾아오는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태성기자

야3당, 민주당과 한국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해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대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야3당은 결의문을 통해 "촛불혁명이 명명된 제1의 정치개혁과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이 장벽에 부딪혀 민주당, 한국당 양당의 기록권이 개혁의 열망을 막아하고 있다"며 "그토록 개혁과제 폐쇄성을 외치던 민주당은 자신의 기록권을 지키기 위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회피하고 있다.

국민계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수차례 약속했던 스스로의 신념을 부인하는 민주당을 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회피하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선거제 개혁 약속을 번복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양당의 기록권 때문에 제1의 정치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좌초시킬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하는 선거, 연동형비례대표제라는 최우선의 개혁과제를 저버리고 어떻게 개혁을 논할 수 없다며 지금은 계산할 때가 아니라, 결단할 때"라고 전했다.

이들은 "민주당과 한국당은 기록권을 내려놓고, 정치개혁에 동참하라,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기록권 양당 결단하라, 연동형비례대표제, 국민과의 약속이다. 기록권 양당 결단하라"라고 결의했다.

국회=김성구기자

이상민 의원, 신기술 개발 규제 제로법 발의

연구개발특구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 제외된 신기술 개발에 규제 특례부여



과학 기술 방 송 정보 통신위원회 이상민(더불어민주당 과학 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 의원은 혁신적인 신기술을 창출하는 연구개발 특구가 되도록 임시적으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첨단 과학 기술의 발전을 통해 개발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실증 및 신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특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특구내에서는 신기술을 제한적 시험·기술적 검증할 수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 한해 서면 제한하고,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해당 신기술에 대한 근거 법령이 미흡한 경우 실증을 하기 위해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신기술 개발에 활성화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가 있어도 간단한 절차를 거쳐 일부 실험과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연구개발특구가 4차산업혁명의 신기술 개발의 거점이 될 것"이라며 "연구개발특구에서 실증을 통해 대전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상민 의원 외에 이철희·이종걸·강훈식·정성호·이기구·이규희·김두관·안민석·김병욱·전재수 의원이 함께 공동발의했다.

김정환기자

NAVER 더욱보여주세요! 네이버스토리

“대전투데이”를 검색하세요.

전문자료 책 사진 지역 뉴스 소켓 사이트 이미지 내PC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구분환 의원, 전통시장 전문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 모색



대전시의회는 28일 구분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주관으로 '전통시장 전문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화재 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한 방

안으로, 상인들로 구성된 전문의용소방대를 설치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구범립(전통시장 상인회 회장), 김선태(의용소방대 연합회 회장), 도미자의용소방대 연합회 부회장), 송성호(대전시 대응관리과장) 등 관련 전문가들과

현장에서 소방활동에 참여하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전통시장 화재안전대책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열띤 토론의 장이었다.

구분환 의원은 "전통시장은 화재에 취약한 만큼, 화재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화재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서는 전통시장 내에서 바로 초기진화에 나설 수 있는 전문의용소방대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구 의원은 "작은 불이 화재잠사가 되지 않도록 화재진압의 '골든타임'을 지켜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 개정 등 제도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인들이 보람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임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중구선관위, 대전원예농협 대의원 대상 위탁선거법 교육

위탁선거법 교육 및 투표체험행사개최



대전광역시중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재철)는 28일 대전원예농협에서 임원 및 대의원 등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교육 및 투표체험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내년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장선거 선거사무일정과 주요 제한·금지규제사항 및 과태료·포상금제도를 안내하는 한편 투표체험행사에 함께 실시하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는 학원·지역 등 영고주의에 의존하는 선거풍토로 관행적 금품수수가 여전하고, 신고·제보의식도 낮아 선거법 준수를 위한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실시하여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김정환기자

온양행궁 복원 다양한 관광콘텐츠 개발과 연계돼야

아산학연구소, 제2회 세종 온양행궁 포럼 개최



순천향대 아산학연구소(소장 이영관 교수)가 지난 27일, 온양행궁 터에 자리잡고 있는 온양관광호텔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온양행궁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제2회 세종 온양행궁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영관 소장은 "세종 리더십과 온양행궁의 미래라는 주제로 세종대왕의 온전 휴양은 물론 백성들과의 소통의 장이었던 온양행궁이 역사적 흐름 속에서 본래의 모습을 상실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며, "원형을 상실한 온양행궁을 복원하거나 재현하는 여정은 더 이상 방지할 수 없는 '급한 현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소장은 지자체와 시민이 합심해 세종대왕과 온양행궁의 가치를 온전히 되살려내 아산시를 일류문화도시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중요한 실현 방안의 하나로 '가칭'세종온궁로'의 지정 등을 통해 역사적 가치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발표했다.

김준식 충남대 지역문화콘텐츠연구소 부소장은 '온양행궁 세종대왕축제의 구성과 성공전략'을 발표했다.

세계적인 관광트렌드는 단순 여행에서 탈피해 다양한 체험과 연계된 자기계발을 추구하는 여행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온양행궁과 세종대왕의 역사적 사실을 부각하고 이를 활용한 전통문화축제의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아산시 지역사회의 풍부한 역사문화 콘텐츠와 결합된 '가칭' 온양행궁과 세종대왕축제'로 탈바꿈 시켜나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희현행지였던 온양온천의 부활을 이끄는 신희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수지 한기림역사문화연구소 연구위원은 지정토론에서 '세종대왕의 문화 트레킹'에서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에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애민정신이 깃들여 있다고 전제하고, 궁중에서 연주되던 전통음악인 '아악'과 '향악'의 정비에 박차를 가해, 조선 음악의 틀을 세우는 작업에는 명사성과 함께 전문음악가였던 박연의 역할이 지대했다고 발표했다.

김명희 대안농원 대표는 '온양행궁 조선궁중요리의 관광 상품화'를 제시했다.

김 대표는 온양온천이 우리나라의 대표 온천 중 하나이지만 아쉽게도 대표할 만한 먹거리가 없다고 지적, 타임지가 선정한 10대 건강식품의 하나인 '호박'을 이용해 온양행궁의 상징성을 함축하는 '호박탄'을 대표 상품으로 개발하고자 제안했다.

탄은 궁중 다과상에 올랐던 대표적인 후식류로 호박탄은 호박을 삶은 뒤 으깨어 꿀로 반죽해 다시 호박모양으로 만든 조선 궁중의 대표 음식과 '淸實果'이며 온양온천의 호박탄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 관광 상품화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임재일 공주대 객원교수는 '온양행궁 상징조형물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 제안'을, 유선중 아산문화재단 상임이사는 '온궁의 온천 관광 자원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아산시가 주최하고 아산학연구소가 주관하며 아산충무회, 온양문화원, 한기림역사문화연구소가 후원했다.

이영관 소장은 "세종대왕이 방 문해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백성들과 소통하며 애민사상을 몸소 실천했던 온양행궁은 조선 왕실온천문화의 역사적 가치를 함축하고 있다"며, "온양행궁을 복원하거나 재현하는 여정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지만,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는 온양행궁 축제의 콘텐츠 개발 및 조선 궁중요리의 관광상품화,

온양행궁의 상징조형물 건립, 온양행궁로 지정 등 관광산업과 연계된 콘텐츠 개발을 통해 온양행궁이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화 순천향대 산학협력부총장은 "아산학연구소가 지역사회의 역사, 문화, 관광, 교육 및 산업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왔다"며 "제2회 세종 온양행궁 포럼'도 중장기적으로는 복원에 초점을 맞춰져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세종대왕을 비롯하여 첫 번의 임금님들이 방문하셨던 온양행궁의 역사적 상징성에서 그 가치를 먼저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포럼이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과 온양행궁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문화산업도시를 지향하는 아산시의 브랜드 고도화(高度化)를 선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축사에서 "그동안에도 온양행궁에 대한 여러 가지가 지역사회에서 논의돼 왔지만 더 이상의 실적이나 가시적 성과 없었던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라며 "지난 2월 세종 온양행궁 포럼 창립 후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거쳐 오늘을 새로운 주제를 갖고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오늘 포럼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시공'이라고 보는데 그중에서도 영교대와 신정비가 유일하게 현존하고 있어 근원적인 복원에 대해 다뤄져 왔었고 호텔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어려움도 안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자원이란게 자부심이 있다"며, "계속된 연구는 연구대로 진행되어야 하고, 이것을 둘러싼 실현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가 돼서 북학적이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된다는 것에 아산시로서는 적극 공감하고 중·장기 활용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역사적 자원이 되도록 아산시 차원에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충무회 박종덕 회장은 "아산시 관내 대학 중 순천향대가 가장 모범적으로 우리지역의 발전에 관심을 갖고 기여하고 있다는 것에 새삼 공식적인 자리에서 칭찬하고 싶다"며, "2회째 주제발표를 갖게 된 것은 그만큼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자리에 참석한 오세현

시장 역시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에 나서겠다는 말씀에도 감사드린다"며, "아산시장 재임 중에 가장 큰 업적으로 남기셔도 좋겠다"고 농담섞인 덕담을 건네자 행사장은 웃음과 환호의 박수가 터졌다.

이 날 포럼에는 오세현 아산시장, 박종덕 충무회 회장, 이덕일 한기림역사문화연구소장, 이흥복 전충무회장과 주제발표자, 아산시 관계자가 대학측에서는 이종화 산학협력부총장, 이영관 아산학연구소장을 비롯한 대학 관계자,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큰 관심을 보였다.



미래엔 서해에너지, 특정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간담회

사고에 대한 위험 인식 및 실습

미래엔 서해에너지(대표 박영수)는 지난 27일 당진에 위치한 본사에서 특정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간담회를 실시했다.

충남 서북부 5개시·군(당진, 서산, 홍성, 예산, 태안)에 도시가스 공급하는 미래엔 서해에너지는 충남 당진에 위치한 본사 비전홀에서 특정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총 80여 명의 안전관리자가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특정가스 사용시설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남지역본부 정경용 부장을 초빙, 법규 및 사고사례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도시가스사내 공유와 더불어 시설물 실습을 통해 현장에서의 안전을 강조

했다. 미래엔 서해에너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한 사고에 대한 위험 인식 및 실습을 통한 교육이 직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며, 고객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특정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간담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미래엔 서해에너지는 매년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도출된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해 보다 안전한 도시가스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당진=최근수 기자

리량주 기자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업무협의회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28일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7층 대회의실에서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대비하기 위한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투표소 설치 및 선거관리 인력·시설·장비 등 조합별 선거사무 사전 협의사항에 대한 조합별 협의서에 서명을 하였으며, 관내 5개 조합의 조합장과 선거사무담당자가 참석하였다. 선거관리 관계자는 "2019년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후보자 및 조합원 유권자들이 상호 신뢰하고 존중해 아름다운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1도 가격으로 최대한 할인 혜택! C/P, P/P, P/P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1도당 1000원 할인 혜택!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서구 신서동 30-30 대전투데이 7층

www.daejeontoday.com

대전선사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토기 전시

발굴유물특별전 '처음 만난 토기, 제주 고산리 유적'

대전선사박물관이 '2018 대전선사박물관 발굴유물 특별전 - 처음 만난 토기, 제주 고산리 유적' 특별전을 개최한다.

대전선사박물관 발굴유물 특별전은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전시로, 문화재 발굴조사를 통해 발견된 유물을 통해 새롭게 우리의 역사를 조명하고, 선사문화와 매장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열리고 있다. 제주 고산리 유적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신석기시대 유적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조사된 신석기 유적 가운데 가장 오래된 유적으로 유물을 보관하고 있는 국립제주박물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전시가 성사됐다.

이번에 전시에서는 고산리 유적에서 처음 발견되어 '고산리식(高山里式土器)' 토기로 불리는 우리나라 최초의 토기, 신석기시대 초기 대표적 토기인 '뿔뿔(뿔뿔土器)' 등 출토 유물 70여점을 전시한다.

대전선사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우리 지역에서 보기 힘든 제주도 출토 유물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나아가 대전의 선사문화와 타 지역의 선사문화로 비교하고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막행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이며, 전시는 이날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각종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 및 참여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문의: 대전선사박물관 042-270-8642). 김태선 기자

제23대 대전상의 제3회 임시의원총회

대전상공회의소는 28일 오전 11시 30분, 롯데시티호텔 1층 크리стал볼룸에서 상의 회장단과 상임의원, 의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임시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대전상회의는 이날 정관 개정안을 비롯해 제23대 의원 및 특별의원 보궐선거 실시안 등의 안전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임시의원총회에서는 기존 25인

이내의 상임의원 수를 30인 이내로 증원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지난 6월 세종상의 출범에 따라 대전상공회의소 일반의원 9명, 특별의원 7명 등 총 16명의 결원이 발생하여, 의원 및 특별의원 보궐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보궐선거는 다음달 3일 선거일 공고를 시작으로 선거인

명부 열람 및 후보자 등록 개시(6일), 선거인명부 확정(13일), 선거투표 및 개표(19일), 당선인 공고 및 통지(20일) 등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대전상의 의원은 현재 9명에서 보궐선거 후 12명명으로 늘어나, 지역 경제계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할 예정이다. 정성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보궐선거 실시안 의결을 통해 보다 많은 의원들이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병배 기자

우리도 오늘 사랑의열매 시작한다!

어디나 사랑에 먼저 오면다고요?
거창하게 않아도 좋습니다. 소액기부부터 나눔 활동까지, 사랑을 전하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니까요.

말씀, 지금 사랑하고 있나오?

희망 2019 나눔캠페인

1도 가격으로 최대한 할인 혜택! C/P, P/P, P/P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1도당 1000원 할인 혜택!

희망 2019 나눔캠페인 시·군 순회모금 일정

지역별	일시	장소
천안시	12월 06일 10:00	천안시청 대회의실
공주시	12월 12일 14:00	공주시청 대회의실
보령시	12월 14일 10:00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
아산시	-	-
서산시	12월 14일 10:00	서산시 문화회관
논산시	12월 14일 10:00	논산시 문화체육회관
계룡시	12월 14일 10:00	계룡시 보건회관
당진시	12월 14일 14:00	당진시청 대회의실
금산군	12월 20일 14:00	금산다목적 소공연장
부여군	12월 14일 14:00	부여군 복지문화회관
서천군	12월 17일 14:00	서천군 문화체육회관
청양군	12월 07일 10:00	청양군 문화체육회관
홍성군	12월 07일 14:00	홍성군청 대회의실
예산군	12월 14일 10:30	예산군청 추사홀
태안군	12월 17일 10:00	태안군청 회의실

대전광역시 서구 신서동 30-30 대전투데이 7층

대전상공회의소 후원

• 동 정 •

2018년 대전예술인대회



김종천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 29일 오후 2시 30분 라온 컨벤션에서 열리는 민주평통 2018 하반기 대전지역 자문위원연수에 참석. 오후 5시 호텔ICC에서 열리는 2018년 대전예술인대회에 참석.

동구 8경 확정 선포식 개최



황인호 동구청장 = 29일 오전 11시 구청 10층 중회의실에서 동구 8경 확정 선포식을 개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회



박용감 동구청장 = 29일 오후 4시 30분 청사 중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회' 참석.

인구정책위 신규위원 위촉



장중태 서구청장 = 29일 오후 2시에 서구청 다목적실에서 인구정책위원회 신규위원을 위촉한다.

2018년 그린리더 워크숍



정용래 유성구청장 = 29일 오전 10시 30분 구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2018년 그린리더 워크숍에 참석.

국제특급우편 발송 행사



박정현 대덕구청장 = 29일 오전 10시 대덕구 오정동 대덕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열리는 '다문화가족 국제특급우편 발송' 행사에 참석.

대전근현대사 전시관 2019 상반기 대관 전시 모집

대전시는 근대등록문화재 제18호로 지정된 옛 충남도청사의 의미있는 활용과 원도심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내달 12일까지 내년 상반기 대관 전시를 원하는 문화예술인을 모집한다. 대관장소는 원도심의 중심에 있는 옛 충남도청 내 1층 기획2전시실(165.2㎡)이며, 모집 대상은 회화, 공예, 설치미술, 사진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품을 전시하는 단체 및 개인이다. 선정 방식은 전시의 예술성, 대중성, 참신성, 원도심 활성화 기여도를 중심으로 평가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도시재생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대관료는 무료며, 기간은 월 2회 각 15일 정도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홈페이지(행정정보/시정자료실/공보고시공고)에서 볼 수 있다.

이영호 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도로 복개시설물 정비사업 본격 착수

동구, 특별교부세 4억 원 확보... 삼성동 한밭중학교 인근 복개시설물 정비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도로 침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된 도로 복개시설물 정비사업에 본격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지난 9월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확보하여 삼성동 한밭중학교 인근 노후

복개시설물 정비를 내달 중 착수할 계획이다. 해당 정비 구간은 54m에 이르며 지난해 9월 도로 함몰이 발생한 곳으로 보강공사가 시급히 요구됐던 곳이다. 공사 시 도로 차량 및 보행자 통행, 특히 인근 중학교 통학 불편

을 최소화하고자 도로를 굴착하지 않고 하수박스 내부에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구는 용운동 일원 노후 하수박스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보강공사를 완료한 바 있다. 황인호 구청장은 "최근 전국적

으로 도로 침하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여 사회문제로까지 이어진 바 있다"면서 "노후 하수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중구 문화1동 라인댄스 연탄 나눔

난방 취약가구에 연탄 300장 전달

대전 중구 문화1동(동장 황윤환)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인 라인댄스회장 김선자에서 28일 난방에 취약한 1가구에 연탄 300장(2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다양한 공연행사에 참여해 받

은 수익금 일부로 연탄 구입비를 마련하고,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기원하며 진경화 강사와 회원이 함께 연탄을 직접 날랐다. 김선자 회장은 "우리가 쌓아드

린 연탄에 사랑과 정성이 깃들여 따뜻함이 오래도록 지속되길, 우리 동네 이웃을 위한 나눔이 꼭이 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윤환 동장은 "이웃사랑을 직접 실천해주시는 라인댄스 프로그램 강사님과 회원분들께 감사하고, 이처럼 이웃 간 정과 나눔이 넘쳐나 모두가 행복한 마을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음식물쓰레기 RFID기반 종량기 주민설명회

대덕구, 비래동 삼익동자아파트에 7대 설치

대덕구(구청장 박정현)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지난 28일 비래동 소재 삼익동자아파트에서 입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음식물쓰레기 RFID기반 종량기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RFID 종량기는 기존의 세대별 균등 부과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배출량만큼 무게를 확인하고 세대별로 개별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대덕구는 2016년부터 5개아파트 430여 세대에 66대를 설치·운영 중이다.

설명회는 주민들에게 종량기 배출방법 시연과 사용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 관계자는 "종량기 도입 전 대비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가 39% 이상 감량되는 효과를 보였으며, 주민 설문 조사에서도 큰 만족도를 보였다"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구는 내년도 45대의 종량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종량기 설치 사업을 확대해 음식물쓰레기 퇴출을 위한 환경오염 문제와 처리비용 부담 문제 등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선 기자

2018 대전 바이오인의 밤 개최

대전 바이오산업 지속 도약산·학·연·관·병 네트워크 구축

대전시는 28일 오후 5시 대전 ICC호텔에서 바이오산업 발전 및 교류협력력을 위한 '2018년 바이오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바이오산업의 지속도약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관 행정부시장, 이상민 국회의원, 송민호 충남대학교 병원장, 맹필재 (사)바이오스캐어협회장 등 바이오 분야 산·학·연·병·관 관계자 130여명이 참석했다.

대전시가 주최하고 대전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 및 (사)바이오스캐어협회가 공동주관 하는 '바이오인의 밤 행사'는 지역 바이오산업을 견인하는 혁신주체가

행사는 민선7기 경제정책방향 등 시장공유, 대전 IP 바이오센터 사업성과 발표, 대전 바이오벤처 기업 성공사례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대전시 한선희 과학경제국장은 '개방과 혁신으로 살리는 대전경제 실현'을 위한 7개 분야별 추진전략 과제를 담은 민선7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진 성공사례 발표에서는 지난 21일 코스닥 상장에 성공한 유진산 (주)파메인 대표가 창업부터 상장까지의 과정을 발표해 후배 바이오기업인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재관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바이오산업 활성화 생태계 구축을 위한 체계적 지원으로 우리 지역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최수만 대전테크노파크 원장은 "지난 1년간 바이오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바이오인력 인력양성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기술, 시장, 인력, 자금유치에 효과적인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대전 바이오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태선기자

서구, 민·관 협력 통합사례관리 우수사례 발표회

"견고한 사회안전망 구축"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28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민간 사회 복지관계자, 실무자, 동 사회복지 담당자 등 약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민·관 협력 통합사례관리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장종태 청장은 "민·관이 함께 하는 사례발표회에서 우수 운영 사례를 공유해 업무의 역량 강화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공공과 민간이 함께 견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기에 처한 기구 모두가 품고 희망을 가지고 행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회 1부에서는, 지적 장애인 다자녀 가구, 정신질환 가구, 장애인 성폭력 피해가구 등에 대한 위기 지원 사례가 소개되어 민·관 복지담당자와 사례실천 기법을 공유·소통하는 자리를, 2부에서는 조성민(카페 희망) 대표의 힐링 특강을 마련하여 사례관리담당자의 업무소진 예방 및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해 참석자들의 큰 반응을 얻었다.

한편, 서구는 발표회와 함께 민·관 협력의 뜻과 노력을 통해 어려운 환경속에서 희망을 찾고 변화해가는 소중한 이웃들의 이야기 총 23편을 담은 여섯 번째 사례관리 모음집 '희망을 그리다'를 각 기관에 배부할 예정이다.

박봉관 기자

성폭력추방주간 민·관 합동캠페인

市, 응징이 문화의 거리서 폭력예방 위한 홍보

대전시는 28일 오후 2시 은행동 일원에서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11.25~12.1)을 맞아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을 기념하는 민·관·경 합동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은 식전 비보잉 공연을 시작으로 폭력예방 결의문 낭독을 비롯해 데이터폭력과 디지털 성범죄 방지 구호 제창, 홍보물 전시 등 우리사회 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행사로 진행됐다.

이날 캠페인은 성폭력피해자 대전통합지원센터인 충남대학병원 해바라기센터가 주관하고, 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대전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의 폭력피해자 지원 시설관계자, 시 분청 및 5개 구청, 경찰청, 교육청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여

했다. 캠페인은 식전 비보잉 공연을 시작으로 폭력예방 결의문 낭독을 비롯해 데이터폭력과 디지털 성범죄 방지 구호 제창, 홍보물 전시 등 우리사회 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행사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응징이거리 일대의 상점과 거리의 시민들에게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디지털 범죄 없는 세상'이란 홍보문구가 담긴 텀블러 등을 배부하면서 폭력 근절을 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제8회 유성구평생학습센터 수강생작품발표회

유성구 판매수익금 150만원 기탁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28일 구청 행복사방에서 '제8회 유성구평생학습센터 수강생 작품발표회' 판매수익금 150만 원을 유성구행복누리재단에 기탁했다.

타의 공연과 25팀의 작품이 선보였다. 특히 손마사지, 어깨마사지, 먹거리부스 등 수강생들이 학습센터에서 배운 실력을 재능기부로 발휘하는 뜻 깊은 학습축제의 장이었다.

이번 기탁은 지난 17일 유성온천공원에서 제8회 수강생작품발표회로 평생학습센터(구암?전민)에서 운영한 프로그램의 성과를 공유하고 주민 간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3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진정한 배움 나눔을 실천하는 수강생 및 강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며, "주민들이 더욱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대노인복지관 작품전시회 열어

캘리그래피·미술공예교실의 작품전시회 진행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본관 신대노인복지관(관장 김형식)은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시니어리더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캘리그래피와 미술공예교실의 작품전시회를 진행한다.

시니어리더교육프로그램은 대덕구에서 지원·운영해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신대노인복지관에서는 1년간 캘리그래피교실과 미술공예교실 수업을 개설해 어르신들에게 일련의 과정을

즐기며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게했다. 어르신들은 직접 쓰고 그린 작품이 액자나 머그컵으로 제작되거나, 만들 때는 몰랐는데 액자에 끼워져 전시장을 차지한 자신들의 작품들을 보면서 "내가 했어도 너무 예쁘고 뿌듯하다. 전시회를 한다고 해서 내 작품이 관심을 끌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관람을 희망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자율관람으로 복지관을 내방해 자유롭게 관람하고 즐기면 된다.

송병배 기자

서해선 최장 아산 해암3터널 관통

한국철도공단, 개통 후 250km/h급 고속 전동차 운행 예정 · 수도권 접근성 개선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은 충청남도 홍성군과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을 연결하는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18개 터널 가운데 가장 긴 해암3터널(4.748km)을 관통하는 기념행사를 2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과 영인면을 연결하는 해암3터널 공사는 지난 2016

년 2월 시작되어 관통까지 약 2년 10개월이 소요됐다.

사업비 약 585억 원 지역중소업체 건설장비 약 3만4000대 근로자 약 11만 3000명이 투입되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날 해암3터널 시점부에서 열린 관

통 기념행사에서 철도공단 이종윤 총청본부장은 "경의선과의 연계를 통해 향후에는 북한·중국을 거쳐 유럽까지 이어질 서해선 철도의 주요공정이 이렇게 하나하나 마무리되고 있다"면서, "철저한 공정관리로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적기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총사업비 3조 9,084억 원을 투입하여 90.01km의 서해선 철도를 건설하고 있으며, 개통 후 시속 250km/h의 고속 전동차(가칭 EMU, Electric Multiple Unit)가 운행됨으로써 수도권로의 접근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환기자



현대오일뱅크 임직원 김치 사랑 훈훈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에 위치한 현대오일뱅크(대표 강달호)가 대산읍사무소에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일곱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에는 현대오일뱅크 임직원 및 사택가족과 대산읍새마을지도자협의회, 대산읍사무소 등 약 150여명이 참여해 담근 김장김치 2,500포기 뿐 아니라 겹쌀 300포대도 함께 전달할 계획이다.

김장재료로 사용한 배추와 무, 고춧가루 등의 각종 채소 뿐 아니라 함께 전달한 겹쌀도 모두 지역농가에서 재배한 농산물이기 때문이다.

이날 행사를 준비한 홍혜숙 대산읍새

마을부녀회장은 "우리 주변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과 훈훈한 정을 나눌 수 있어 기쁘며, 지역과 함께 상생하기 위해 노력하는 현대오일뱅크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현대오일뱅크 유틸동 상무는 "지역사회와 함께 해온 김장행사가 올해로 7년을 맞이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역을 먼저 생각하고 더 큰 나눔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주 현대오일뱅크는 지역에서 재배한 고구마 900박스를 어려운 이웃과 단체에 전달하는 등 지역 지역주민과 함께 해 열린 기업이라는 증표를 받고 있다.

서산=김정환기자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 총력 서천군, 이월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지난 27일 군청 상황실에서 4차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는 박여종 부군수를 중심으로 5백만 원 이상 체납된 7개 부서의 부서장 및 주요 체납 담당이 참석한 가운데 고액 체납자별 징수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군은 지방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를 위해 12월말까지 하반기 이월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변호판영치, 예금압류, 공매, 관허사업 제한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행정력을 총 동원할 방침이다.

김인수 재무과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우리군의 중요한 자재원으로 전 부서가 동참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서천=김태선기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 불합리하다”

중소기업중앙회, 보건복지부에 사업주 부담분에 대한 합리화 건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8일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해달라는 내용의 서면건의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고용허가제 대상국가 16개국 중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8개국의 외국인근로자는 상호주의에 의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반을 납부해주고 있다.

중소기업이 국민연금 가입 지원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한해 1800억원 이상으로 적지 않은 규모이다.

중소기업계는 상호주의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이 받는 혜택과 국내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교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더군다나 외국인근로자(E-9)는 나이에 제한(40세도 있고)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최장기간이 9년 8개월이어서 노후보

장이라는 국민연금의 본래 성격과는 차이가 있으며, 대부분의 외국인근로자가 출국시에 사업주가 납부한 금액까지 합쳐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함에 따라 '이중 퇴직금' 성격에 불과하다.

중기중앙회 이재원 고용지원본부장은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과 경영환경 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내용에 대해 검토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조속히 개선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조폐공사 최대 67% 할인 '블랙 KO' 이벤트 실시

창립 67주년 기념 2019 황금돼지해 미니골드바 등 67종 메달 대상



한국 조폐공사(사장 조용만, www.komSCO.com)는 창립 67주년을 기념해 29~30일 이틀간 67종의 메달 제품을 대폭할인 판매하는 '블랙 KO' (Black KOMSCO Oh!) 이벤트를 실시한다. '블랙'은 연말연시 대대적인 할인 판매행사를 대폭할인 판매하는 '블랙 KO' (Black KOMSCO Oh!) 이벤트를 실시한다. '블랙'은 연말연시 대대적인 할인 판매행사

인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이다.

이벤트 기간 중 '2019 황금돼지해 미니골드바' 375g 제품의 경우 10% 할인된 가격인 196만 650원에 판매한다. 이는 최근 금 도매 시세가 19만4천3.75g 기준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파격적인 가격이다.

또 ▲'인물 메달' '윤리문자도 메달' '은행권 인물 메달'은 67% ▲'유통주화 세트' 50% ▲'문화제품 및 체험품 40% ▲'독도 금메달'과 '임진년 금메달' 30% ▲'문진 심이진심 메달'과 '무술년 개의 해 기념메달'은 각각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다.

할인판매 제품은 조폐공사 쇼핑몰(www.koreamint.com) 및 전화(02-710-5228)를 통해 구입 가능하다.

송병배기자

탕정면 새마을부녀회 '며느리 봉사' 실시

아산시 탕정면 새마을부녀회(회장 남기숙)는 지난 27일, 독거 어르신 및 저소득 소외계층에 반찬나눔 봉사인 '며느리 봉사'를 실시했다.

새마을부녀회원 20여명은 아침 이른 시각부터 갑산1리 마을회관에 모여 동태찌개, 닭볶음탕, 잡채 등 7~8가지 반찬을 손수 만들어 독거 어르신 및 저소득 가정에 직접 전달했다.

뿐만 아니라, 가정 방문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부와 건강을 살펴봐도 해드리는 등 진정한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천안시 지방보조금 모니터단 간담회 열려

보조금 집행 내역 검토·의견 제시로 사후 제재 통한 관리·감독

천안시는 지방 보조금 집행 모니터를 대상으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지방 보조금 모니터는 공정하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확립하기 위해 전국 자치단체 중 천안시가 최초로 2016년부터 일반 시민, 단체관계자, 전문가, 시민참여감사관 등 25명으로 구성·추진한 차별화된 보조금관리시스템이다.

모니터단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집행내역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계획과 정산항목별 내용을 비교하고 계획 대비 과다지출 사업을 분석하는 등 보조금 집행

내역 검토 및 시정사항 요구, 의견 제시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는 그동안 모니터단 활동을 통해 173개 사업에 대한 시정 요구가 있어 개선 반영했고 497개의 보조금사업 중 성과평가 결과 기준 등급 이하 사업은 예산 편성 시 감액 조치하는 등 사후 제재를 통한 관리·감독에 힘을 쏟았다.

또 주민이 직접 참여해 부정수급을 감시·강화하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지난달부터 시 홈페이지내 개설·운영하며 보조금 부정 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천안=채기영기자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가져와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고유가 시대
이제는 에너지 절약!**

서부교육지원청, 학교급식 특별 점검

겨울철 식중독 사고예방 위해 학교급식 불시 위생점검



대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은 오는 12월까지 교육장 및 국·과장급 간부공무원들이 서부 지역 초·중학교 9교를 대상으로 겨울철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한 '급식 위생안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교육장 및 간부공무원들이 학교급식 현장을 방문해 식재료 검수와 급식시설 설비의 위생·안

전 및 급식업무 담당자의 개인위생 상태 등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한 사항들을 점검한다.

노로바이러스는 낮은 기온에서도 활발한 활동력을 보이는 겨울철 식중독의 주된 원인으로, 손 씻기 생활화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열 조리된 식품을 섭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예방할 수 있다. 배영길 서부교육장은 11월 28일(수), 유성초 급식실을 방문해 직접 식재료를 검수하고, 조리실 청결 및 개인위생 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한편, 학교급식 관계자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 운영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배영길 교육장은 '학교급식 특별점검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급식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

아산시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운영방안 토의



아산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박광순)가 지난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1기 아산시자원봉사발전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가졌다. 아산시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5조에 근거해 설치된 아산시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 자원봉사발전에 관한 시책강구 및 아산시민의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심의·자문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 및 정기회의는 운영위원장인 이창규 부시장을 포함해 18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상 수여 및 부위원장 선출, 자원봉사센터 현황보고,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운영방안 토의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창규 부시장은 "아산시자원

봉사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것이 의미 있다. 아산시 자원봉사활동을 빛내주고 있는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교류를 통해 보다 살기 좋은 아산, 정이 넘치는 아산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앞으로 아산시자원봉사발전위원회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창규 부시장을 위원장, 박광순 위원(아산시자원봉사센터)을 부위원장으로 20명 위촉직 18명, 당연직 2명)으로 구성된 아산시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 3개 전문분야운영위원회, 대학협의회, 기업사회공헌협의회로 구성돼 반기별 정기회의 및 수시 분과위원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아산=리량주기자

대전보훈청, 보훈봉사기자단

'보글보글 서포터즈' 발대식 가져



대전지방보훈청(청장 강윤진)은 28일 대전보훈청 대회의실에서 보훈봉사기자단 '보글보글 서포터즈' 발대식을 가졌다.

대전보훈청 보훈봉사기자단 '보글보글 서포터즈'는 현장 및 사례 중심의 따뜻한 보훈복지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구성된 대전지역 중·고등학생 기자단으로, 보훈을 글로 표현한다는 의미와 보훈가족을 위한 마음이 뜨겁게 끓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대전보훈청은 대전만민고등학교 2학년 김민아 학생 등 5명을 '보글보글 서포터즈'로 위촉하고 앞으로 진행될 따

뜻한 보훈복지 현장체험 및 홍보 활동에 자부심을 갖고 성실하게 활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김민아 학생은 "대전지방보훈청 보글보글 서포터즈로 활동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따뜻한 보훈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보훈대상자를 위한 자원봉사 및 복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따뜻한 보훈을 몸소 실천한 지역사회의 기업 및 단체 관계자, 학생 등 7명에게 대전지방보훈청장 표창장 전수식도 함께 진행됐다.

송병배기자

'제4회 물산업 스타트업 포럼' 개최

한국수자원공사, 물산업 혁신기술 창업 생태계 조성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11월 28일 오후 4시, 대전시 유성구 K-water 스타트업허브에서 '제4회 물산업 스타트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물산업 스타트업 포럼은 물산업 혁신기술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올해 1월부터 3회에 걸쳐 개최하여 20개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사전 공모(10.24~11.21)를 통해 선정한 7개의 '협력 스타트

업'을 발표하고 이들 기업의 사업 계획과 핵심 기술을 소개한다.

특히 점차 세계화 되고 있는 물산업 창업 생태계를 고려해 국내 창업을 준비 중인 1개의 핀란드 스타트업을 추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앞으로 2년 동안 이들 8개 기업의 고성장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 사항은, 기술 자문과 경영 컨설팅 지원, 기술 성능 테스트베드 제공, 창업 공간 제공, 국내

외 물산업 엑스포 및 포럼 등 공동 참여기회 제공 등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창업 준비 단계지만 창업 후의 성장이 기대되는 12개의 스타트업을 '펠리시 스타트업'으로 선정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향후 1년간 이들 기업에 창업 교육과 사업 계획 멘토링 등을 제공해 본격적인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자원공사는 공사가 지원하고 있는 유망 스타트업이 현재까지 약 33억 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28

억 원 규모의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되는 한편, 신규채용이 지원 전에 비해 30% 증가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물산업 스타트업 포럼을 통해 지속해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소개하여 혁신기술 창업 생태계 조성에 나설 것"이라며, "물분야 혁신성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중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봉관기자

충남대 '동문기업인 비즈니스 포럼' 개최

충남대 LINC+사업단과 창업재단, 총동창회는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11월 27일(화) 오후 5시, 유성 라도무스아트센터에서 '충남대학교 동문기업인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덕성 총장, 강도록 총동창회장, 박영순 대전시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50여명의 충남대 동문 기업인들이 참석했으며, LINC+사업단, 창업재단, 총동창회 소개에 이어 한신회 대전시경제과학교육장과 장대의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의 초청강연 등에 이어 산학교류의 시간이 이어졌다. 동문기업인 비즈니스 포럼은 대학과 동문이 손잡고 산학협력 활성화를 통해 상호 교류를 위해 마련됐다.

동문기업인 비즈니스 포럼은 충남대 LINC+ 사업단을 중심으로 학교와 동문 기업인 상호간 다양한 산학협력을 통한 동반성장과 우수성과를 창출하게 된다. 이를 위해 LINC+사업단과 총동창회가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충남대 학생들의 동문기업 인턴십, 현장실습, 취업 연계로 이어지면서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정환기자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m 이내 금연구역 확대

12월 31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인근서 흡연시 과태료

청양군(군수 김동관)이 오는 12월 31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현재 유치원·어린이집은 해당 시설 경계 내부로 한정해 법적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31일부터는 유치원·어린이집 경계면에서 10m 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시설부지가 넓지 않고 건물 경계가 도로와 맞닿아 있는 경우 아이들이 간접흡연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다. 군 보건의료원은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관내 27개 유치원·어린이집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금연 정책 정착과 지역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구역 현수막을 설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금연구역 확대' 홍보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연중 금연지도원의 지속적인 금연상담 서비스, 금연교육, 금연보조제 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는 만큼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청양=정성범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게재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미래엔 서해 에너지, 도시가스봉사의 날 참여

제10회 도시가스업계 봉사의 날 맞아 가스안전점검 등



미래엔 서해 에너지(대표 박영수)는 지난 26일 '제10회 도시가스업계 봉사의 날'을 맞아 가스 안전

점검 및 보온용품 전달을 활동을 실시했다.

충남 서북부 5개시·군(당진, 서

당진=최근수기자

진료비확인서비스, 국내 최초 보건의료정책서비스 인증

심사평가원, 2018 한국서비스 품질인증으로 국민신뢰도 향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의 '진료비확인서비스'업주가 28일 (사)한국서비스진흥협회에서 시행하는 한국서비스 품질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한국서비스품질 인증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서비스

진흥협회가 주관하는 제도로 제조서비스, 건설 서비스, 서비스업, 공공 서비스 등 각 기관에서 실시하는 우수한 품질의 서비스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서비스 품질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심사평가원의 '진료비확인서비스'는 ▲리더십 ▲서비스품질 경영

전략 ▲서비스 경영성과 등 7개 항목 25개 지표를 바탕으로 3단계 심사서류심사, 현장·암행평가, 최종심사)를 거쳐 보건의료정책서비스 부문 국내 최초인증마크를 획득했다. 2018년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관으로는 심사평가원을 포함해 총 8개 정부부처·공공 및 민간기관이 선정됐다.

송병배기자

세종시, 겨울방학 대학생 행정인턴 50명 공개 모집

1월 3~31일 행정업무 지원...내달 3일부터 인터넷 접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대학생들에게 행정업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달 3일부터 인터넷 접수를 통해 대학생 행정인턴을 모집한다.

이번에 선발하는 겨울방학 대학생 행정인턴은 총 50명 규모로, 배치된 부서의 행정업무 지원, 민원안내 등 공무원 업무를 경험하고 봉사활동과 현장견학 등에도 참여하게 된다.

근무 기간은 내년 1월 3일부터 31일까지이고, 기간 중 주 5일 및 1일 8시간(점심시간 제외) 근무하며, 173만 6,800원이 지급된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2018. 11. 28) 기준으로 대학에 재학 중인 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달 3일부터 인터넷 접수를 통해 대학생 행정인턴을 모집한다.

지원 방식은 우선선발(가·나·군)과 일반선발로 나뉘며 본인에게 유리한 한 선발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우선선발 '가군(10명)'은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 차상위계층 본인 또는 자녀, 국가유공자 자녀가 해당되며, '나군(10명)'은 시장활동 참여자로 세종시 내 봉사활동 35시간 이상

참여자, 시에서 실시하는 정책아카데미 5회 이상 참석자가 해당된다.

일반선발(30명)은 본인 또는 부모가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학생이나 세종시 관내 대학교 재학생이면 가능하다.

단, 2016년과 2018년 사이 세종시청에서 시행한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대학생은 지원이 제한된다.

지원 희망자는 다음달 3일부터 7일까지 세종시청 홈페이지(http://www.sejong.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공개 전산추첨을 통해 최종대상자를 선발, 다음달 11일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세종=김태성기자

Junior 창업캠프&창업경진대회

한밭대, 14년째 이어오고 있는 전국 고등학생의 창업프로그램



국립한밭대학교(총장 최병욱)는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제14회 전국 Junior 창업캠프&창업아이템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국 Junior 창업캠프&창업아이템경진대회는 한밭대 창업보육센터(센터장 김건우)가 주관하여 14년째 이어오고 있는 대표적인 전국 고등학생의 창업프로그램으로 기업이 정신을 함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창업캠프에서는 '스타트업'을 위한 '크라우드펀딩'을 주제로

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이템 고도화 및 크라우드 펀딩을 위한 스토리텔링에서 모의투자까지의 과정을 경험하는 기회도 주어진다. 아울러 이번 창업경진대회에서는 지난 11월 12일부터 18일까지 전국 고등학교에서 112개 팀, 320여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창업아이템 사업계획서를 1차 심사하고 상위 10개 팀을 선발했다.

시상식은 12월 20일에 개최되며, 2차 최종 발표심사를 통해 대상(1팀), 최우수상(1팀), 우수상(2팀), 장려상(3팀), 아이디어상(3팀)을 선발한다.

김정환기자

아산시 음봉면 새마을협의회

'따뜻한 안부전하기' 이웃사랑 실천



아산시 음봉면 새마을협의회(회장 박홍순, 부회장 이모숙)는 '새마을운동 활성화 특별사업'으로 추운겨울 홀로 쓸쓸히 지내

는 독거노인을 위해 안부를 확인하는 '따뜻한 안부전하기' 말벗 봉사활동을 지난 27일부터 시작했다.

'따뜻한 안부전하기' 말벗 봉사는 음봉면 행복키움추진단과 연계하여 선정된 저소득 대상자

10가구를 대상으로 매일 직접 방문을 통해 건강상태와 고충 등을 확인하여 지원하는 활동이다.

음봉면 새마을협의회는 이날 첫 활동을 시작으로 도움방을 가꾸어 나가는 '따뜻한 안부전하기' 말벗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아산=리량주기자

대기방지시설 내부 ‘텅텅’ · 페인트 분진 ‘푹푹’

대전시 특사경,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자동차정비업체 7개소 적발

보령해경, 해양사고 대비

불시 현장훈련 실시

보령해양경찰서는 지난 27일 오전 10시 충남 보령시 무장포항 인근 해상에서 해양사고 대비 대응을 위해 실전형 현장훈련(FIX)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은 경비함정 6척, 파출소 연안구조정 5척, 해경구조대가 참여한 가운데 충남도청 지도선, 육군 경비정이 참여해 실제 사고와 유사한 기상 상황을 설정 진행했다.

이번 훈련은 무장포항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인 낚시배(9.77톤, 승선원 8명)가 암초에 좌초되어 선내 파공으로 침수가 발생하여 승선원이 해상 추락한 상황을 설정하여 신고 접수부터 구조까지 끝난 타임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뒀다.

보령=김태선기자



대덕구, 내 손으로 내 이웃 돌보기 대덕구(구청장 박정현)가 지난 28일 구청 청렴관에서 동별 자원봉사회 발대식을 열었다. 동별 봉사단원과 내빈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발대식은 주민 스스로 '내 마을 내 이웃 돌보기'를 통해 이웃에게 눈과 귀를 열고 관심을 기울이며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마을 공동체의 결속력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청양소방서, 요양병원 합동훈련 실시 청양소방서(서장이 일용)는 지난 26일 청양군 소재 훈 요양병원에서 피난약자시설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피난약자시설 관계자의 초기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화재대발시기를 대비하여 대피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됐다.



태안소방서, 소방차 통행로 5곳 도색 완료 태안소방서(서장 구동철)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출동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인 서부시장과 특산물전통시장에 소방차 전용도로 임을 알리는 로고를 도색했다고 전했다.



새마을운동동구지회, 사랑의 김장담가주기 새마을운동대전동구지회(지회장 박우) 회원 60여명은 지난 27일 동구지회에서 사랑의 김장담가주기 행사를 실시해 배추김치 10kg을 동구관내 어려운 이웃 200가구를 선정, 전달했다.



천안동남소방서, 의용소방대원 합동 소방동로 확보 훈련 천안동남소방서(서장 김경호)는 27일 천안중앙시장 및 역전시장 일원에서 의용소방대원과 함께 재래시장 합동 소방동로 확보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전봉사체험교실, 독립유공자 명패 사업 성금 200만원 기증 지난 27일 정원진 애국지사(92세, 대전 유성구 거주)의 자택에서 대전봉사체험교실 권홍주 회장이 독립유공자 명패달아드리기 사업 성금 2백만원을 정선홍 광복회 대전시지부장 권한대행에게 전달하고 있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도심지역에서 환경미원을 유발하고 시민의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운수장비 정비 및 부품 제조업체에 대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기획단속을 벌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리차량이 많은 1급 자동차종합 정비업체와 관련부품을 제조·재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인허가를 받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대기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자동차를 정비하거나 부품 재생 과정에는 경화제와 합성수지가 혼합된 페티, 안료, 용제, 기타 첨가제

가 혼합된 도료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이 포함된 희석제(일명 정제) 등이 다량 사용되고 있다.

작업 중 이런 물질이 대기중으로 유출될 경우 오존(O3) 농도를 증가시키고 초미세먼지를 유발해 노약자나 어린이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어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해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적발된 A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집진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인 분리시설(2마력)을 운영했다.

B사업장은 차량표면의 페인트

나 오염물질을 벗겨내는 작업을 하면서 대기방지시설인 여과집진시설(400m³/min, 300m³/min) 2대를 가동하지 않아 페인트 분진을 대기 중으로 무단 배출했다.

또한 C사업장은 도장 작업 중 오염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밀폐 형태로 설치되어 운영 중인 도장부스(87m³)를 사용하지 않고 빠른 작업을 위해 야외에서 용제자를 도색하다 적발됐다.

D사업장은 도장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유기용제물질을 포집하기 위해 대기방지시설 내에 반드시 설치해야 할 흡착필터를 부착하지 않고 지난 5월부터 약 6개월 가량 내부가 텅 빈 상태로 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영호기자

서산경찰서 사망사고 음주뺑소니 피의자 2명 검거

서산경찰서(서장 김백준)는 술에 취해 도로위에 쓰러져 있던 보행자 유00(남, 56세)을 충격후 역과해 사망하게 하고 그대로 달아난 피의자 장00(여, 29세) 등 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8년 11월 24일 04:55시경 서산시 고운로 62 세종의원앞 도로에서 예천사거리 방면에서 산경찰서 방향으로 진행중이던 피의자량이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었

던 피해자를 3분 간격으로 차례로 충격하고 도주 피해자는 병원 후송중 사망 했다. 현장에는 차량 물받이를 포함한 유류품 조각 뿐이었고, 특히 당일 비가 내려 주변 CCTV로는 차량을 특정할 수 없어 사건이 장기화될 우려 됐다.

경찰은 사고 진행방향에 설치된 번호인식용 CCTV를 분석해 사고 시간대 통과한 차량 31대를 발췌하여 육안으로 수사, 역과차량은 현장에 떨어진 유류품으로 차종을 특정, 같은 시간대 주행 기록이 있는 차량의 주거지 및 관내 주차장

을 탐문해 검거 했다.

검거 후 피의자는 동물을 충격한 줄 알고 그냥 갔다는 진술을 확보하여 이동경로 및 유류품을 통하여 피의자를 추궁, 사고 및 도주 사실을 자백 받았다.

김백준 서산경찰서장은 "2018년 현재까지 뺑소니 및 음주운전 등 중과실 교통사망사고는 전원 검거되었고 엄중 처벌할 것이며, 항상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서산=김정환기자

금강청,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미세먼지 단속팀' 현장투입

배출업소 점검·단속 및 공단순찰 등 실시

금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진)은 11월 27일부터 충청남도 지역에 미세먼지 주의보 및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미세먼지 단속팀"을 가동하여 배출업소 점검·단속 및 공단순찰 등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팀은 27일부터 총 6개 조 13명이 투입되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 사업장,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

출하는 비산배출시설 등을 점검하고, 공단 내 사업장에서 불법오염 유발행위 발견 시 즉시 단속할 수 있도록 공단순찰도 병행했다.

또한, 현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의 본격 시행('19.2.15)을 앞두고, 충청지역은 자치단체별로 자체계획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운영 중이다. 특히, 금강청은 11월 16일부터 "미세먼지 현장대응반"을 구성

하여 충청지역 4개 광역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한 단속팀을 운영하고 있다.

김동진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에는 단속팀을 신속히 투입하여 오염원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며,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인 만큼 사업장에서는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박봉관기자

아산시장애인지원센터, 탈시설·자립생활 위한 토론회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역할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 장



아산시장애인지원센터가 탈 시설·자립생활 정책 실행을 위한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의 장을 마련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2011년 이후부터 탈시설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여전히 거주시설 장애인의 비율과 절대수가 감소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시설 거주 장애인의 지역사회 전환을 위한 지원체계가 아직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이다. 탈 시설·자립생활 정책 실행을 위한 지방 정부와 지역사회의 방향성이 제시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토론회에는 박종근 나사렛대 교수가 '자립생활 실행을 위한 지역사회 역할 및 체험 홀의 필요성'으로 주제 발표에 이어 '탈 시설

을 위해서 지역사회는 시설장애인이 중심이 되는 지원체계, 다양한 기관과 전문가의 협력이 필요하다.' 탈 시설전문가·발달장애인지원 전문가 양성 등 지역사회와 지방 정부의 탈 시설 모델과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동희 소장은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체험 홀 설립과 현재 서울의 상황, 앞으로의 변화, 방향성 제시로 자립생활 진영에서 끝없이 외치고 있는 탈 시설화는 체험 홀 운영의 필요성과 함께 주거권을 쟁취해야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보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신인수 소장은 "자립생활의 근거지로서 II 체험 홀은 최소한 시군구에 두

개씩은 만들어져야 한다. 성별 즉 남성장애이용, 여성장애이용 이렇게 두 개씩 이라는 것이다. 실제로는 더 많은 체험 홀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자립생활 이념과 운동의 확산 속에 체험 홀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운영비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민훈 교수는 "탈 시설 자립생활 정책실행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탈 시설을 장애인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는 충분하지 못한 시설의 부족이다. 또 하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문제가 바로 그 배경이 되었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경선 논산시의원(前 늘피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탈 시설 정책 마련을 위한 우리의 할 일로 현재 탈시설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립생활센터의 기능 강화 및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산시장애인지원생활센터 소장(박남철)은 이번 토론회가 탈 시설·자립생활의 정책 실행을 위한 올바른 방향과 비전이 제시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공주준법지원센터, 1사1촌 마을

“행복한 배추나눔 농장 운영”



공주준법지원센터(소장 조한경)는 사회적 약자 배려 및 국민 감동을 위한 사회봉사명령 집행의 일환으로, 1사1촌 협약을 맺은 공주시 상황 2동 마을 주민들과 함께 행복한 배추나눔 농장을 운영, 공동으로 경작한 배추를 수확하여 관내 복지시설에 기증했다.

지난 9월에 시작된 행복한 배추나눔 농장은 공주시 상황 2동 마을 주민이 무상지원한 밭 200m² 부지에 공주준법지원센터 직

원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함께 배추 모종을 심고, 수시로 재작업을 해 운영되어 왔으며, 11월 28일 약 200포기의 배추를 수확하여 관내 복지기관에 전달했다.

조한경 소장은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주=정성범기자

‘소방차 길 터주기’ 시민 동승체험

당진소방서,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및 상습 정체구간 실시



당진소방서(서장 박찬형)는 지난 27일 14시경 '소방차 길 터주기' 시민 동승체험을 당진시 일원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및 상습 정체구간에서 일제히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서는 소방차 길 터주기의 소방차량의 골든타임을 위한 양보운전의 필요성을 체험해 시민들에게 홍보 확산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시민이 소방차에 직접 탑승해 소방관과 함께 출동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소방차가 사이렌을 켜고 출동할 경우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 ▲일반도로는 긴급차의 진행차로에 있는 차량과 우측차로에 있는 차량들은 우측방향으로 양보, 긴급차의 좌측차로에 있는 차량들은 좌측으로 양보 ▲횡단보도에서는 긴급차량이 보이면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잠시 멈추면 된다.

당진=최근수기자

세종시교육청, 계약업무 담당자 연수 실시

계약담당자 대상... 학교회계 분야 계약의 달인을 꿈꾸다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28일 세종시교육청 2층 대강당에서 본청 및 직속기관, 관내 유·초·중·고 계약담당 150명을 대상으로 「2018년 계약업무 담당자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계약업무 담당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이번 계약연수는 '학교회계 사례 중심의 지방계약제도의 해설'을 주 연수 내용으로 구성했으며, S2B(학교장터) 사용자 교육과 계약담당 부서 담당자

들의 각종 계약관련 유의사항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연수에서는 일선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학교회계업무 담당자들의 계약업무 전문성 신장을 위해 지난 2016년도에 처음 발간한 '학교회계실무' 책자를 일선학교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계약관련 법령 제·개정 정보를 현행화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 계약 사례를 예시 부분에 실는 등 세

롭게 보완한 '학교회계실무' 책자를 보급했다.

또한, 일선학교 계약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현재 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며 학교 사례중심의 계약연수 강사 경험이 많은 타 시·도 학교회계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학교회계 업무 담당자들에게 유익한 연수를 진행하고자 노력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학교 행정실의 업무

중 많은 부분이 회계 관련 업무"라며, "학교회계담당자들은 누구보다도 높은 정령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며, 정령함을 기본으로 학교회계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끊임없는 자기 연찬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신뢰받는 세종교육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세종=김태선기자

보령시청소년수련관 자원봉사동아리 '물 좋은 녀석들' 충남교육감상 등 3개 부문 수상 쾌거



보령시는 지난 24일 열린 2018 충청남도 청소년자원봉사대회에서 보령시 청소년수련관의 자원봉사동아리 '물 좋은 녀석들'이 충청남도 교육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여섯가족부와 충청남도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청소년봉사활동 활성화 및 참여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에서 '물 좋은 녀석들' 외에도 성인 문해교육을 진행한 '창의로운 녀석들'이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이사장상을, 지도자부문에 이형석 청소년지도사가 충청남도교육감 표창을 수상하는 등 모두 3개의 상을 휩쓸었다.

청소년 자원봉사동아리 '물 좋은 녀석들'은 초등학생들로 구성된 환경정화 동아리로 EM토분을 활용한 수질 개선 활동과 EM비누 만들기, 환경정화 캠페인, 하천 정화활동 등을 통해 지역 하천을 살리고 시민들의 의식을 개선하는 활동을 펼쳐왔다.

보령시청소년수련관 동아리는 청소년지도자포상제의 일환으로 자원봉사와 연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지난해 장관상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상 3개 등 연이은 수상으로 청소년활동의 우수성을 인정받게 됐다.

보령=김정미기자



보령교육지원청, 꿈키움멘토단 협의회 및 사후평가회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진호)은 지난 27일에 보령교육지원청 제2회의실에서 업무담당자와 꿈키움 멘토링 멘토가 참석한 가운데 꿈키움멘토단 협의회 및 사후평가회를 실시했다. 이날 협의회 및 사후평가회에서는 하반기 멘토 활동에 대한 사례공유 및 소감발표와 2018 멘토 활동 마무리 안내 및 사후평가, 2019꿈키움 멘토링 안내 및 의견교환의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제원중, 학교발전기금 전달식 가져

한국타이어(주) 금산공장, 500만원 지원

한국타이어(주) 금산공장(대표이사 조현범)은 27일 제원중학교의 학교 교육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발전기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발전기금 전달식에는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경영관리팀 김석 팀장과 김형순 차장이 참석하여 "제원중학교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중하게 사용해 달라"며 전달 소감을 밝혔다.

전달식에 참여한 학생회장은 "중학교 입학했을 때부터 한국타이어에서 기증

한 컴퓨터로 수업을 해 왔었는데, 오늘 발전기금을 받게 되어 기쁘다. 지역에 있는 기업이 많은 교육적 사업을 하는 것도 알게 되었고, 후배들이 좀 더 좋은 교육환경에서 수업할 수 있게 되어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백종진 교장은 "학교발전기금을 기부해 주신 한국타이어(주) 금산공장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기부해 주신 학교발전기금은 제원중학교 학생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금산=주연기기자



'제4회 꿈·끼 펼침 한마당' 열려

2018 청양중등특수학급 공동교육과정 연합 발표회

청양군내 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한 해 동안 배운 교육성과를 보여주는 2018 청양중등특수학급 공동교육과정 연합 발표회 '꿈·끼 펼침 한마당'이 지난 27일 청양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특수학급이 있는 청양중, 정산중, 화성중, 청양고, 정산고 5개교 학생들이 준비했다. 공연장에는 학교교직원과 교직원, 학부모 등 180여 명이 참석,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아끼지 않았

다. 발표회는 두구두구 난타단의 공연으로 시작, 까르르 연극단, 벚꽃로 연주단, 다당실 무용단, 찬조공연(남성중창), 블랙&라이트, 시낭송, 하하하 합창단의 순으로 진행됐다.

공연장 밖에는 학생들이 직접 만든 작품들을 판매하는 바자회가 열렸고, 그림 등이 전시돼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으며, 그 중에서도 우수작품은 행운권 당첨 선물로 제공되었다.

청양=정성범기자

Wee센터 전문적학습공동체 4차 연수

공주교육지원청, 초·중·고 전문상담(교)사 및 Wee센터 직원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은 28일 대회의실에서 공주시 관내 초·중·고 전문상담(교)사 및 Wee센터 직원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Wee센터 전문적학습공동체 4차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한국사이버대학 상담심리학과 유성진 교수를 강사로 초빙해 'TQ 워크샵'을 실시한 것으로 TCI는 C.R.Coininga의 심리생물학적 인성모델에 기초해 개발된 검사로서 기존의 다른 인성검사들과 달리, 한 개인의 기질과 성격을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다는 큰 장점

이 있다.

이번 연수 참석자들은 학생들의 기질과 성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TCI를 이용해 학생 개인의 사고방식, 감정양식, 행동패턴, 대인관계 양상, 선호 경향 등을 폭넓고 정교하게 이해해 좀 더 전문적인 상담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영덕교육장은 "인성 발달에 미친 유전적 영향과 환경적 영향을 구분해 인성 발달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좀 더 학생 개인에게 적합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주=정성범기자

교과교육연구회 공동연수 및 전시회 개최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나만의 비주얼씹기 수업 만들기' 공동연수



대전교육과학연구원(원장 배상현)은 11월 28일 대전 지역 교원 280여명을 대상으로 '나만의 비주얼씹기 수업 만들기' 공동연수를 실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연구원 1층 전시실에 교과교육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물을 전시한다고 밝혔다.

교과교육연구회는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 10명 내외로 이루어진 교원들이 자율적으로 연구회를 조직하여 교실수업개선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해 연구할 수 있도록 3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3월 계획서 공모로 선정된 32개 연구회를 대상으로 4월 대표자 협의회 시 전년도 우수사례를 공유했으며, 연구자 8명이 1:1로 매칭 되어 5월에서 9월까지 중간발표회 수업 나눔 및 세미나를 실시했다.

이번 공동연수는 지난 6월 '창의·인성 인재양성을 위한 인성교육' 공동연수에

이어 두 번째이며, 참석한 교원들은 교실 수업개선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11월 30일까지 '연구 결과물 전시회'를 개최하고, 연구 결과물을 대전교육포털 에듀랑과 연구원 웹자료를 탑재하여 그 성과를 공유하고 일반화할 예정이다.

전시회에서는 ▲스토리텔링과 코딩으로 진로개발역량 기초 세우기(초등 분야) ▲게임 리터러시를 활용한 영어수업 재구성 및 적용(초등 분야) ▲인문학을 활용한 미술교과 5개 역량 강화 수업연구(중등 미술 분야) ▲학교급간의 성장단계별 필수교육 및 학생간 멘토링 프로그램 개발(초·중·고·특수학교 연합 연구회) ▲인성교육 실천 사례 공유 및 분석을 통한 대전형 인성교육 방향 모색(고등학교 분야)에 대한 연구 결과물이 눈길을 끌었다.

김정환기자

2018년 대전 연합 꿈드림 축제 개최

대전시·서구·유성구 꿈드림 연합



대전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유성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지난 27일 오후 3시, 대전 중구 문화원 뿌리홀에서 '2018년 대전 연합 꿈드림 축제'를 개최했다.

대전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 3개 기관의 축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연합 축제로 학교 밖 청소년과 가족, 친구, 청소년 유관기관 및 실무자 200여명이 함께 모여 학교 밖 청소년의 끼와 재능을 발휘하는 공연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성과를 공유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소통의 장이 됐다.

송병배기자

순천향대 교육대학원, 상생발전 위한 MOU 체결

지역의 우수협력 교육기관과 손잡아



순천향대 교육대학원(원장 이신동) 교수는 28일, 교내 대학본관 회의실에서 지난 5월에 이어 지역의 우수협력 교육기관과 손잡고 상호 관심분야 및 교육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교육서비스와 교류를 갖기로 하는 등 대학원 4개 기관간 상생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학원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우선으로 교육과 연구를 위한 상호협력은 물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상생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지는 취지에서 우수협력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향후 협력적 관계를 통해 인적자원 교류와 교육 인프라 지원 등 상생발전 도모와 교육적 시너지를 공유하기 위한 취지에서 협약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4개 기관과 협약된 공동주요사항은 ▲현장맞춤형 우수인재육성과 연계되는 장비 및 시설 활용 협조 ▲우수협력 교육기관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교육컨설팅, 기관연수, 교육봉사, 현장실습, 교육대학원 입학 상호 협력 등이며, 협약기관과의 상호 관심분야 및

교육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한 교류를 추진하게 된다.

이신동 교육대학원장은 "우리대학과 손잡고 선뜻 함께하기로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순천향대는 인근지역에서는 역사적으로나 규모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선도적이고 가능성이 큰 대학이다. 교육대학원의 입학정원도 인근대학 중 가장 크며, 교사 양성 기능을 갖추고 있어 많은 인재들을 배출해 왔다"고 말했다.

이건찬 와이즈만 영재교육 전안센터 대표는 "순천향대가 지역사회에서 명망 있고 실력 있는 대학과 이렇게 MOU를 맺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큰 기대를 갖고 있다"며, "앞으로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생발전의 계기로 삼아 더욱 더 책임 있는 교육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그동안 순천향대 영재교육분야, 지역 아동 청소년 상담 전문기관, 이동보호전문기관, 체육분야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되어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한 기관 중에서 분야별 경쟁력이 있는 기관들을 선정해 손잡게 됐다.

아산=리랑주기자

세종시교육청, 개칭 이후 최초 시행

교육감 공약이행평가단 공개 모집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제3대(혁신 2기) 세종시교육감 공약 이행현황을 교육공동체가 스스로 점검·평가하기 위한 '교육감 공약이행평가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교육감 공약이행평가단'의 총 규모는 20명으로 교육전문가 5명, 세종시민 15명으로 각각 구분하여 공개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로 10일 간이며, 지원 자격은 세종교육정책에 관심이 있는 교육전문가나, 공고일(27일) 기준 세종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

는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시교육청 개칭 이후 처음 시행하는 교육감 공약이행평가단 공개 모집은 세종시민·교육전문가·교육청이 함께 공약을 실천하고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교육공동체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역량 있는 시민과 전문가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교육청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세종=김태선기자

● 동 정 ●●

학교장 정책협의회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29일 오전 10시 세종시교육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학교장(고등학교) 정책협의회」에 참석.

찾아가는어르신 치매예방교실인기

지난 12일부터 운영 중인 '찾아가는 어르신 치매예방교실'이 일상에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참여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치매예방교실은 지역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을 노후를 위해 치매예방 보드게임, 실버놀이, 친환경 화장품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치매예방교실은 치매 극복에 앞장서는 세종시작은도서관연합회 도서관장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해 지역 사회 구성원 중심의 자발적 복지서비스 참여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또, 어르신들에게 익숙한 화투 그림을 이용해 제작된 치매예방 보드게임과 주머니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한 친환경 화장품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참여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찾아가는 어르신 치매예방교실은 지난 12일부터 시작해 오는 12월까지 관내 41개 마을회관을 모두 순회하며 실시한다.

김정란 세종광역시치매센터장은 "이번 금남면의 찾아가는 어르신 치매예방교실을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치매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고문의

(042)538-3030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기탁

세종새롭동 풍요로운교회 "나눔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 만든다"

세종시 새롭동 풍요로운교회(담임목사 최재현)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풍요로운교회는 성금 100만원을 기탁하고 착한교회 현판도 전달받았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새롭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지역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최재현 목사는 "교회 성도들과 사랑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병배 기자



충남도 삽교호 수질개선 속도 낸다

삽교호 물관리대책협의회 개최... 시·군 사업 추진 상황 공유·토론

충남도는 28일 아산시청 워크숍룸에서 '2018년 삽교호수계 물관리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천안·아산·당진·청양·홍성·예산 등 삽교호수계 6개 시·군과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협의회는 기관별 수질 개선 대책 추진 실적 및 계획 발표, 삽교호 수질오염총량제 확대 방안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각 시·군은 △삽

교호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가축사육제한 구역 조례 개정 등 제도 정비 △하수처리시설, 하수관거정비사업,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 사업 △생태계 복원 사업 등 삽교호와 연결된 하천에 대한 수질 개선 사업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농어촌공사 당진지사는 △저수지 수질 개선 사업과 △준설 계획 등 삽교호 내 수질 개선 사업을 소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또 내년부터 천안천, 아산 곡교천, 당진 남원천 정비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삽교호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청양 환경기초시설 확충 사업 △생태계 복원 사업 등 삽교호와 연결된 하천에 대한 수질 개선 사업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 10월 도지사의 당진시 방문에서 삽교호 수질 개선을 위해 유역의 시·군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고, 양승조지사 공약사업이기도 한 담

수호 수질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삽교호의 물을 되살리고 기류와 같은 재난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삽교호수계 물관리대책협의회는 지난 2003년부터 삽교호 유역의 시·군 협의체로 운영돼 오다 2015년 '충청남도 물 통합관리본부 운영규정'에 명문화 해 매년 운영 중이다. 김성구 기자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신입면봉회 경로당 현판식 "어르신들 편안한 쉼터로 이용"



예산군이 28일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신입면봉회 경로당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황선봉 군수를 비롯해 박상목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경로당은 지난 19일 개관한 신입면봉회회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존에는 구신암면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왔다.

이후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여가 공간 조성 및 공공복지 기능 활성화를 위해 신축 이전을

추진하게 됐다.

이승우 신입면봉회장은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경로당이 마련된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어르신들의 편안한 쉼터로 이용될 것이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마을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이 편리하고 깨끗한 공간으로 개선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쾌적한 생활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양성업기자

"독거노인 건강증진·안정된 생활 지원 합심"

세종시보건소·세종재가노인지원센터 업무협약

세종특별자치시보건소(소장 이강산)가 27일 세종재가노인지원센터(센터장 류권식)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방문건강관리 대상인 독거노인의 건강증진과 안정된 생활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세종재가노인지원센터는 노인 돌봄, 재가노인지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서비스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에게 각종 필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지역 내 독거어르신의 건강, 안전, 보호 등을 위한 상호협력 △독거어르신들의 욕구충족과 서비스 연계에 힘을 모으게 된다.

또 △노인돌봄 및 응급안전서비스와 방문건강관리 연계 △치매, 알코올중독, 우울증 관련 대상자 연계 수행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이강산 보건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내 독거노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12월 1일 신도심 버스노선 2차 개편 시행

세종시, 601·602·1000·BRT 990번 운행계통 변경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12월 1일부터 순환노선 203번 신설 및 601번, 602번, 1000번, BRT 990번의 운행계통 변경 등 신도심 버스노선 2차 개편을 시행한다.

이번에 신설되는 203번은 2생활권에서 정부세종청사, 도담동, 국립세종도서관을 거쳐 세종예술고등학교까지 양방향으로 순환 운행하게 되며, 오전 6시부터 22시 30분까지 10~15분 배차간격으로 운

행한다. 또 오전(05:55~08:15)에만 한정 운행하던 간선노선 602번은 폐지되며, 대신 601번 노선의 배차시간을 평균 15분에서 12분으로 단축해 운행한다.

주중(15분)과 일요일 및 공휴일(20분)로 구분해 운행되던 광역노선 1000번은 전일 15분 균일배차로 변경되며, 대평동커뮤니티센터와 금남면사무소를 추가 경유한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는 BRT 990번이다.

BRT 990번은 그간 민간업체인 ㈜세종교통에서 운행하던 것을 세종시교통공사로 변경하며, 오송역 서울행 KTX 및 반석역 지하철도의 연계도 한층 강화했다.

특히 BRT 990번과 오송역 서울행 KTX 열차 연계는 수도권으로 출·퇴근을 하던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사항으로, 첫차 운행시간을 05:45분에서 06:00로, 막차 운행시간을 12:00에서 00:30분으로 변경 운행한다.

이번 2차 버스노선개편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두희 교통과장은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버스노선 개편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3차 개편으로 마무리 된다"면서 "개편 완료 후에도 시민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체계 구축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1차 버스노선 개편으로 2생활권 순환노선 203번을 신설, 지난달 15일부터 운행하고 있다.

김태선 기자

민관협력 우수기관이름동배우자 전국서 벤치마킹 방문 줄이어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복지허브화 선도 지역으로 선정된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행정복지센터(동장 신현장)에 벤치마킹을 위한 타 지자체의 방문이 줄어 있고 있다.

28일에는 포항시 두호동·환어동 협의체 위원과 맞춤형복지공무원 20명이 아름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찾아가는 보건 복지서비스 등 이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우수사례와 운영 노하우를 공유했다.

특히 이들은 민관협력을 통해 다양한 복지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이름동만의 노하우와 권역형으로서 중심동과 일반동의 업무 범위와 협력 방법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에 앞서 지난 27일에는 대전 대덕구 비래동·송촌동 협의체 위원과 동장, 복지공무원, 대전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 20여 명이 아름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민관협력 사례 추진 노하우를 배웠다.

신현장 동장은 "아름동은 민관 협력을 통해 행정서비스 중심의 동 기능을 지역복지의 중심기관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복지체감도를 제고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2040예산군기본계획 군민계획단 위촉 및 워크숍

정책 및 장기적 발전방향 제시



예산군(군수 황선봉)은 27일 군민 스스로 삶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2040 예산군기본계획' 군민계획단 위촉과 함께 첫 번째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2040 예산군기본계획은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뤄질 수 있는 정책 및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계획이다.

군민계획단은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47명으로 구성됐으며 동부, 서부, 남부생활권역으로 나눠 경제·산업분야, 사회복지 분야 등에서 다양하게 활동

하게 된다. 또한 총 4회의 워크숍을 통해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이 담긴 미래상을 제시하게 된다.

첫 워크숍에서는 '2040 예산군기본계획'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설명 및 각 권역별 토의를 진행했고 오는 12월 18일까지 매주 1회씩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황선봉 예산군수는 "군민들께서 주신 의견을 귀담아 들어 군민중심의 완성도 높은 예산군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양성업기자

HYUNDAI Mission for Human 현대파워텍의 변속기 기술은 인간을 위해 헌신합니다. Advertisement for Hyundai PowerTech transmission technology, featuring images of car parts and a list of benefits.

동정

한마음대회



오세현 아산시장은 29일 온양그랜드호텔에서 열리는 지역문화재단 역량강화사업 권역별 포럼에 참석, 시민홀에서 열리는 아산시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에 참석.

공직자윤리위원회



김종창 당진시장은 29일 오후 2시 당진시청 접견실에서 열리는 2018년 당진시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주재

최종보고회



가세로 태안군수는 29일 오후 2시에 군청 소회의실에서 '태마형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공원 계획 변경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

선진지견학



김돈곤 청양군수는 29일 오전 9시 전북 완주군으로 푸드플랜사업 선진지견학을 다녀온다.

청양군의정동우회 초청 간담회 열려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28일 상황실에서 군정발전을 위한 지혜와 조언을 듣기 위해 '청양군 의정동우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돈곤 군수와 청양군 의정동우회(회장 조병안)회원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는 민선 7기 군정 운영방향을 설명하고, 청양군 발전에 대한 상호 토론회를 하며, 의정활동을 통해 쌓인 풍부한 군정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직 의원들의 지혜와 조언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군은 ▲특색 있는 지역경제를 만들기 위한 산업단지 조성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농업의 생산적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푸드플랜 종합타운 조성 및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추진 ▲체류형 관광기반 조성을 위한 칠갑산 휴양관광벨트 조성사업 등 민선 7기 군정 주요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군정운영방향 설명 후 지역 현안 및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의정동우회와 청양군은 하나가 돼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모두가 행복한 청양'을 만들어 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조병안 의장은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시고, 민선 7기 새롭게 발전하는 청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김돈곤 군수를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의정동우회도 작은 힘이나마 청양군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돈곤 군수는 "군민 모두와 약속한 민선 7기 군정을 이끌어갈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이 대부분 마련됐다"고 말한 뒤, "의정동우회 회원님들께서도 단기간 실적 위주 정책보다는 좀 더 멀리 바라보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군정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양군은 그동안 원칙과 상식이 바로 서고, 모든 군민이 공정한 대접을 받는 청양을 만들기 위해 불합리한 관행과 행정시스템 개선, 일·군민 중심 조직 개편 추진, 민관 소통 창구 마련 등 군민중심 군정을 활기차게 펼쳐왔다.

청양=정성범기자

의료서비스 바꾸고 푸드플랜 행정집중 처방

김돈곤 청양군수, 28일 지역 언론인 간담회 통해 추진상황 밝혀

김돈곤 청양군수는 28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지역 언론인들과 정례 간담회에서 군 현안과제인 ▲청양 보건 의료원 활성화 방안 ▲청양 푸드플랜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군민 100인 토론회 결과를 발표했다.

김돈곤 군수는 그동안 전문 의료진 부재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간호 인력 부족으로 인한 입원실 운영 중단으로 많은 군민의 불편을 일으켰던 보건 의료원을 앞으로 군 유입의 지역 공공의료기관으로의 역할을 특목해 해법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군은 공석이던 보건 의료원장을 공개 채용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공중보건의의 복무를 관리하는 의료원장의 공석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고, 의료원 내 직원들의 불친절한 태도 등은 많은 문제점으로 표출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김돈곤 군수는 "조속한 시일 내 의료원장을 채용해 의료원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초고급 사회로 진입한 군 의료정책 대안 마련과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군 보건 의료원 직원의 불친절, 민원응대 미숙으로 인한 민원발생 시 원인을 제공한 직원에 대해 각종 평가 등에서 감점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8월 전문 의료인력 채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지난달까지 전문의 3명(정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내과)을 신규 채용해 배치했고, 입원실 또한 지난 1일부터 운영이 재개돼 체계적인 진료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치매환자 증가(청양군 등록 치매환자수 972명)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내년부터 1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하고 ▲치매예방사업 ▲치매조기검진 지원사업 ▲환자 및 가족 생활지원사업 ▲치매관리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치매예방과 체계적인 치매관리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형 자족도시 조성을 위한 청양 푸드플랜의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계획을 제시했으며, 우선, 학교급식센터 지역농산물 공급비율을 20%에서 80%로 높일 것이라는 계획을 내놨다.

군은 푸드플랜 종합타운을 구축해 ▲소규모 농민가공센터 조성 ▲공공급식 물류센터 조성 ▲지역농산물 안정성 분석센터를 설치하고 안전한 지역순환 먹거리 공급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전시 유성구에 로컬푸드 생산자 직판장 및 레스토랑을 조성하고 공공급식 친환경 농산물을 최저가격 보장제를 시행해 농민들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어 지난 22일 개최한 군민 100인 토론회에서 논의된 구청영여자정보고 활성화 방안과 공동브랜드(칠갑마루) 활성화 계획을 설명했다.

청양=정성범기자



태안군 슬로투어리즘 전문가 양성

슬로관광·공정여행·책임여행 관련 전문지식 교육

국제슬로시티 인증도시 태안이 미래형 선진 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슬로투어리즘 전문가 양성에 힘쓴다.

군은 지난 26~28일 태안군립중앙도서관 1층 12강의실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생태해설사, 평생학습매니저 등 총 28명을 대상으로 '태안군 슬로투어리즘 전문가 과정'을 운영했다.

이번 '태안군 슬로투어리즘 전문가 과정'은 슬로시티 기본 이념·취지, 슬로운동, 에코투어리즘에 대한 전문 지식 교육으로 슬로시티 인증지역에 걸맞은 관광의식 전환의 계기로 삼기 위해 실시했다.

교육은 '한국슬로시티본부'에 위탁해 3일 간 진행됐으며, ▲태안 관광의 역할과 의미 ▲지역자원의 스토리텔링 ▲슬로시티의 기초 이해 ▲슬로관광과 공정여행·책임여행 ▲슬로시티와 슬로투어리즘 ▲자연생태자원과 관광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강의수강과 더불어 답문과 토론을 병행, 참여형 교육으로 진행돼 교육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교육수료생에게는 '한국슬로시티본부'와 '국제슬로시티연맹'의 공식 수료인증서가 발급됐다.

태안군 관계자는 "이번 슬로투어리즘 전문가 교육으로 '슬로시티 태안'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인적 자원 개발과 슬로투어, 공정·에코·책임관광에 대한 인식제고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태안이 미래형 선진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슬로시티(Slow City)는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와 자연환경에 기반을 두고 여유로운 삶을 통해 느낌의 미학을 추구하는 국제운동으로, 태안군은 지난해 5월 '국제슬로시티 호주총회'에서 천혜의 관광자원을 토대로 국제슬로시티 인증을 받은 바 있다.

태안=김정현기자

당진 주요 관광지에 공공 와이파이 설치 완료

왜목마을·삼교호·삼선산 수목원 내 10곳

당진시는 5500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지 3곳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공공 와이파이 설치된 곳은 서해의 일출과 일몰로 유명한 왜목마

을과 삼교호관광지, 삼선산 수목원 등 모두 3곳이다. 왜목마을의 경우 공영주차장 주변 야외 지역 2곳에 와이파이기가 설치됐으며, 삼교호관광지는 전망대 종합어시장 내부 2곳과 외부 2곳에 설치됐다.

삼선산 수목원에도 방문자센터

곳에도 무선 인터넷 와이파이존을 구축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 14곳에 설치된 디지털방과도 개방형 공공 와이파이로 전환을 완료했다.

또한 2019년에는 시가 국비보조 사업을 통해 1억 4,6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당진지역에서 운영 중인 모든 시내버스에도 공공 와이파이를 도입할 예정이어서 당진시 민들의 일상생활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당진=최근수기자

온양1동 바르게살기 이웃사랑 실천으로 행복 전해

아산시 온양1동 바르게살기협의회의 회장 서춘원이 지난 27일, 연말 연시를 맞아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후원물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후원물품은 라면 30개입) 15상자(30만원 상당)로 관내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서춘원 회장은 "매년 겨울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

마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후원물품을 기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단체가 되겠다."고 전했다. 김만섭 동장은 "소중한 후원물

품 기증에 감사드리며 이번 후원물품 지원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온양1동 바르게살기협의회는 매년 이웃사랑 실천 및 나눔 문화 실천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태안군 '군민 불편 해소 앞장'

태안군이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부담 해소와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다양한 시책을 펼쳐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적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불편을 겪던 군민들의 재산권 확보를

위해 '건축물부지 지목변경'을 실시해 농지법(1973년), 산지법(1962) 시행이전 건축물 총 291필지 중 126필지의 지목변경을 완료해 민원인의 설비비 및 농지전용 부담금을 줄였다.

또한 지적측량 후 측량성고도 발

급시 '토지이동신청서'를 미리 작성 후 함께 발급해 재방문횟수를 줄여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비용을 절감했다.

한편 군은 올해 태안경찰서와 서산세무서 태안민원실에 무인발급기를 확대 설치해, 민원인이 군청이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태안=김정현기자

아산시보건소 건강아산 친절운동·청렴 교육 실시



아산시보건소(소장 김은태)는 지난 23일, 아산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직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건강아산 친절운동 및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건강도시 아산을 만들기 위하여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아산시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의거 제7기 지역보건 의료계획(2019~2022)을 수립중에 있으며 금번 건강증진과 "오늘도 보건소는 청렴신호 파란불!!" 슬로건을 주제로 직원과 시민에게 친절행정

및 공직자 청렴으로 더욱 건강한 아산을 만들자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으로 공직자는 시민과 함께하는 친절과 청렴에 대한 의미를 다지하란 되새김질하고 시민은 공직자의 청렴과 친절의 자구노력에 대한 공감과 지지력을 보내주었다.

관계자는 "연말 연시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자 행동강령지침 내용을 시민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게 제7기 지역보건 의료계획(2019~2022)을 수립중에 있으며 금번 건강증진과 "오늘도 보건소는 청렴신호 파란불!!" 슬로건을 주제로 직원과 시민에게 친절행정

아산=리량주기자

"장수시대 건강하게 100세까지"

당진시보건소, 건강 100세 교실 수료식 열려

당진시 보건소는 지난 27일 건강 100세 지원센터 교육실에서 수료생과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 100세 교실 수료식을 개최했다.

총 2부로 진행된 이번 수료식의 1부에서는 9개월간의 교육 수료 과정을 영상으로 되돌아보고 모든 학생들에게 수료증이 전달됐다. 이후 진행된 2부에서는 1년 동안 수료생들이 배운 기공체조와 건강체조를 선보이며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한편 건강 100세 교실은 노화와 통증 등으로 인해 신체기능이 저하된 어르신에게 운동과 자가 건강관리 교육을 제공해 신체와 인지기능의 회복과 건강유지를 돕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제2회 청춘, 건강 100세'를 목표로 한의약 전문 건강교육과 통합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노년기에 적합한 맞춤형 수업을 운영했다.

특히 중풍예방교실과 교통안전교육, 노인의 성교육 등 다양한 주제의 건강교육은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진행하면서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활기찬 노년생활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전문적인 건강강좌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것"이라며 "건강 100세 교실이 장수시대를 대표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우리/동네

자연재해 위험 봉명·마정지구 개선 나서

천안시, 국비 88억을 비롯한 177억원 투입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 추진

천안시는 봉명지구와 마정지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2019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선정돼 국비 88억 등 사업비 177억(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봉명·마정지구는 상습 침수 피해 지역으로, 시는 봉명·마정지구의 정비사업을 위해 선제적 대응과 빠른 행보를 펼치며 풍수해 종합저감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를 수차례 방문해 사업추진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설명해왔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될 봉명·마정지구 정비사업은 2019년 사업비 7억원으로 실시계획 용역 등 제반 행정 절차를 이행한 뒤 2020년부터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봉명지구에는 사업비 102억원이 투입돼 배수펌프장 증설 3개소, 우수관로 개량 및 신설 4.2km의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마정지구에는 사업비 75억원이 지원돼 축제 4.3km, 교량 11개소를 재가설 하는 등 지방하천(마정천) 정비를 통한 저지대 상습침수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심해용 안전총괄과장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건설을 위한 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주민들의 관심이 더해져 소중한 결실을 맺었다”며 “최대한 서둘러 공사를 마무리해 침수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 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채기병기자



부여군 굿뜨래 장학회 이사회 열려

2019년도 임원선임, 2019년도 사업계획 승인

(재)부여군굿뜨래장학회는 지난 26일 군청 선화민남실에서 박정현 이사장을 비롯한 장학회 이사, 감사 등이 참석해 제30차 부여군굿뜨래 장학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19년도 장학생 선발, 고등학생 해외연수 지원, 향토인재 육성 지원사업, 정관개정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이번 이사회를 통해 승인되어 내년부터 추진될 향토인재 육성 지원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학생을 조기에 선발해 장기적으로 지원, 성장 후 백제역사, 백제문화사, 백제관련 고고학 분야를 연구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19년 세부적인 계획과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장학생을 선발한 후 2020년부터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2019년에도 굿뜨래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예술과 체육 분야 전국 규모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재능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수여, 다양한 분야의 인재육성을 한다.

아울러, 올해 관내 5개교 고등학교 학생에게 지원된 글로벌 해외연수 지원사업은 내년도도 관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계속 추진하고, 지역인재들이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고 세계를 향한 우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사회에서는 앞으로도 장학회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장학생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미래 부여군을 이끌어갈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결정했다.

부여=김성구기자

서천군 관광유통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사업설명회 열려

여행과 쇼핑을 한번에 '스마트 관광서천' 시대 개막



서천군군수 노박래는 27일 문의예의전당 소강당에서 체험마을, 음식

식·숙박업소, 농수특산품 판매업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유통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군은 관광유통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사업의 목적과 추진방향, 사업을 함께할 참여영역체가 협조할 사항 등을 설명하고 현재까지 플랫폼 참여영역체로 모집된 경영체에 대한 플랫폼 입점신청서를 수여했다.

관광유통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사업은 서천군과 보령시가 농식품부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으로 공동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서천군은 지역 내 주요관광지와 지역자

원을 통합 연계함으로써 관광객을 지역 내로 유인해 지역 주민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플랫폼은 서천군의 주요관광지와 체험마을, 음식, 숙박시설, 농수특산품 판매 등 다양한 콘텐츠를 등록하는 핸드폰 앱 기반의 온라인 정터로, 향후 플랫폼이 구축되면 이용객들은 핸드폰으로 플랫폼 내 다양한 추천 여행상품과 농수특산품 등 쇼핑을 예약결제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사업에 참여해 플랫폼에 입점하는 경영체들은 플랫폼 구축 후 통합 홍보마케팅 및 서비스 질 개선, 컨설팅 등 역량강화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서천=김태선기자

논산서 '태조 왕건과 개태사' 학술대회 열려

역사문화적 위상 재조명·국가사적 승격의 공론화장 마련

고려 개국 1100주년을 맞아 오는 30일 오후 1시 건양대학교 자연학관 다빈치홀에서 '태조 왕건과 개태사' 학술대회가 개최된다.

논산시(시장 황명선)·충남역사문화연구원(원장 이종수)·국립부여박물관(관장 윤형원) 공동 주최로 진행되는 '태조 왕건, 개태사의 역사적 의미와 그 가치를 재조명하고 개태사지(충남 기념물 제44호)의 사적지정을 위해 마련됐다.

개태사 창건과 관련한 고려의 역사와 고고학적 발굴성과는 물론 당시 불교계의 동향과 개태사의 불상, 석탑, 금고 등 관련 유물·유적에 대한 고찰을 통한 종합적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개태사(開泰寺)는 고려의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한 후 936년부터 4년에 걸쳐 건립한 국가사찰이며, 태조의 진영을 봉안한 진전사찰로서 태조의 통일 위업을 상징하는 고려 왕실의 대가람이다.

후삼국 통일을 위해 마지막 전투가 벌어졌던 지역에 장건해 고려 개국의 정통성을 증명하는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개태사석조여래삼존입상(보물 제219호)을 비롯해 개태사오층석탑(문화재자료 제274호)과 개태사지석조(문화재자료 제275호), 개태사철학(충남 민속문화재 제1호) 등 중요 문화재가 있다.

1986년부터 2016년까지 6차례에 걸쳐 발굴조사가 진행됐고, 해당 조사를 통해 개태사지의 전체 건물배치를 모두 확인해 향후 개

태사의 옛 모습을 재구성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문화자원으로서의 개태사지의 우수성을 알리고 동시에 하루속히 국가사적으로 지정해 논산의 핵심유산으로 키워나가기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국립부여박물관에서 개최된 '개태사 태평성대 고려를 열다' 특별전에 이어 마련됐으며 당일 오전에는 개태사지 및 논산 관내 유적 답사가 함께 진행된다.

학술대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충남역사문화연구원(041-840-5051)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천=김태선기자



계룡시-주체미리푸드 사랑의 김치전달식 가져

계룡시는 27일 시청 현관에서 주체미리푸드(대표 정철재)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배추김치 7kg, 150박스를 기탁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시는 주체미리푸드를 통해 지원받은 사랑의 배추김치를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가정 등 소외계층 150세대에게 전달 할 예정이다.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캠페인 실시

서천군, 성폭력추방 주간 맞아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지난 27일 성폭력추방주간(매년 11월 25일~12월 1일)을 맞아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폭력예방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서천군을 비롯해 경찰서, 서천성폭력상담소, 건강가정센터, 여성문화센터, 에벤에셀지원, 장애인시설 등 유관기관 단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난타 공연 자원봉사, 성폭력추방 서명운동과 가두행진을 통한 캠페인으로 진행됐다.

한편, 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한 상담을 받고 있으며 군민 인식개선 목적으로 노인·장애인 시설 및 기관, 학교·군부대 등 관내 곳곳에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군은 폭력 없는 서천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불법카메라 탐지기 대여 및 공공이용시설 불법카메라 탐지기 점검 등 폭력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천안시 빅데이터 활용해 맞춤형 일자리 추천

맞춤형 일자리·상수관 누수예측 빅데이터 분석 원료

천안시가 빅데이터 분석으로 과학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구인구직 맞춤형 일자리와 상수관 누수예측과 관련한 빅데이터 분석을 마쳤다.

이번 천안시 특성 기반 구인구직자 맞춤형 일자리 분석은 일자리 정책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통계청의 행정동별 인구,업종별 사업체, 사업체 매출액·급여 통계, 고용노동부의 워크넷 구인·구직 성공 5년 데이터 등이 활용됐다.

주요 데이터는 일자리 미스매치 원인 분석, 지능형 프로파일 구축, 맞춤형 일자리 추천 3가지 업무에

활용될 예정이다.

지역 산업 구조와 고용 인력의 관계성 분석 결과 천안은 법인·공정사 종사자, 제조업 종사자 수가 타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제조업 공장지사(종사자 50~299명)유치를 통한 일자리 마련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급여 수준이 높은 일자리 확보를 위해 제조·출판방송·공공행정 업종의 신규 유치 방안도 제시됐다. 이 외에도 30대 인구가 풍부함에 따른 공장지사 등을 유치하는 것이 지역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미스매치 원인으로서는 천안은 남성에 비해 여성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20대 청년층 ▲대졸이상 고학력자 ▲사무직 일자리수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신인 일자리 수는 매우 부족한 반면 무경력직 일자리 수는 매우 많았다.

시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직자/구인기업 직무별 선호 특성을 반영한 지능형 데이터마트를 구축했으며, 천안시 일자리 종합센터 상담사가 상담 시 맞춤형 최적의 일자리를 추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 전산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상수관 누수 예측 분석은 상수도 및 누수 발생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관로 신설 및 교체 우선순위 선정 등 상수도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상수도 관망정보, 5년 상수관 누수내역, 검침량, 계량기 및 국립농업과학원에 제공한 정밀토양도 정보 3종을 제공받아 데이터를 융합·분석했다.

그 결과 누수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때는 3월, 2월, 1월 순이었으며, 천안시 토양배수등급의 66%는 양호하나 35%는 불량지역으로 분석됐다.

이번 빅데이터 분석으로 시는 상수관로 2만7755개 대해 누수 위험도를 중수화해 교체대상지를 과학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사용자 내 누수 판별 수용가 정보를 관계부서에 제공했다.

천안=채기병기자

논산시 제2기 시민감사관 간담회 열려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28일 시청 상화실에서 2018 제2기 시민감사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는 시민감사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기가 만료된 시민감사관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감사관은 공무원의 부정·부패행위와 시민 생활현장의 문제점을 신속하게 해결해 민·관이 행정 신뢰를 도모하고,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한 의견수렴과 시책 도입 방안 모색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31명으로 구성된 제2기 시민감사관은 2016년부터 2년 간 시 기관사와 전문분야 감사에 참여해 감사의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실천결의 및 행동강령교육매년 실시 ▲자율적 내부통제 ▲청렴책자 및 홍보물 발간 ▲청렴캠페인 등

다양한 시책추진과 교육을 통해 공직윤리 확립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힘쓰고 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임기동안 공평하고 투명한 행정, 신뢰받는 시장 실현에 힘써주시는 감사관 여러분, 앞으로도 청렴하고 안전한 논산 구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정

장애체육인의 밤

구분영 천안시장은 29일 오전 11시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서 열리는 천안발천회 월례회의에 참석하고, 오후 5시 세종웨딩홀에서 개최되는 2018 천안시 장애체육인의 밤에 참석.

논산농업대학교 수료식

황명선 논산시장은 29일 오전 11시 건강대 논산청의용합캠퍼스에서 열리는 2018 건강 산·학·연·관 페스티벌에 참석, 오후 2시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열리는 2018 논산농업대학교 수료식에 참석.

학교성과 공유회

최홍욱 계룡시장은 29일 오후 2시 계룡시보훈관에서 열리는 2018년 마을학교 성과 공유회에 참석.

행정협의회

노박래 서천군수는 29일 오전 10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2018년 군민평가단 보조금 지원 단체 성과공모에 참석, 오후 1시 마산문화회관에서 열리는 마산면주민자치회 발대식에 참석, 오후 3시 30분 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서천군-군산시 행정협의회에 참석.

경로 효잔치

박정현 부여군수는 29일 오전 11시 충화면사무소에서 열리는 충화행정복지센터 제막식 및 경로 효잔치에 참석.

동절기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계룡시, 시설물 점검 대형참사 사전 예방

충남 계룡시는 동절기 대비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에 나섰다.

시는 오는 12월 6일까지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관 등 11개소의 시설 안전점검과 함께 안전에 취약한 자연부락 경로당 18개소에 대한 전기안전점검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화재, 지진발생 등에 대비한 시설물을 점검으로 각종 재난,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실시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안전교육훈련 실시 여부 및 책임보험 가입여부, 소방·전기·가스·시설물 관리, 자연재난 대비, 건강관리 대책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난 밀양, 제천 사고와 같은 대형화재를 사전 예방코자 방화문 및 제연·배연설비 설치여부, 방열물질 사용여부 등 소방분야의 세부 점검사항이 추가됐다.

시는 점검결과 시설의 보완 개·보수 등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시설에 신속히 조치요구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강남스캔들 (SBS 오전 8시30분)



임윤호, 신고는 오히려 엉뚱한 복수할까?! 서준은 소유를 협박죄로 신고하고 소유는 경찰차에 오른다. 체포된 딸을 보고 울부짖는 금희를 태운 서준은 소유를 따라 경찰서로 향하다 접촉사고를 당하고, 금희는 정신을 잃는다. 금희를 업고 응급실에 간 서준. 잠시 한 눈을 판 사이 금희가 사라지자 크게 당황하는데...

차탈래 부인의 사랑 (KBS2 오전 9시00분)

진옥은 갑자기 경제권을 넘긴다는 복남의 고집 때문에 중요한 회의에 지각을 하고, 드디어 차매를

인정한 복남은 진료를 갔다 소영과 마주친다. 한편 미래는 동현이가 다쳤다는 준호의 전화에 동물병원으로 달려가는데...

비켜라 운명아 (KBS1 오후 8시25분)



궁지에 몰린 만석(홍요섭)의 회사에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승주(서효림)는 아버지를 돕기 위해 수회(김혜리)를 찾아가는 사이(박윤재)는 시우(강태성)에게 진애(진애)의 소식을 묻고 둘 사이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데...

케이블 영화

살인자의 기억법 (OCN 오후 7시10분)

김영하 작가의 베스트셀러 전격 영화화! 알츠하이머에 걸린 연쇄살인범이라는 파격적인 소재와 새로운 연쇄살인범의 등장 이후 숨 걸 틈 없이 몰아치는 전개, 반전 결말까지 그간 본 적 없는 흡입력 있는 스릴러 소설의 탄생. 예전에는 연쇄살인범이었지만 지금은 알츠하이머에 걸린 병수.

우연히 접촉사고로 만나게 된 남자 태주에게서 자신과 같은 눈빛을 발견하고 그 역시 살인자임을 직감한다.

병수는 경찰에 그를 연쇄살인범으로 신고하지만 태주가 그 경찰이었고, 아무도 병수의 말을 믿지 않는다.

태주는 은희 곁을 맴돌며 계속 병수의 주변을 떠나지 않고, 병수는 혼자 태주를 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태주는 은희 곁을 맴돌며 계속 병수의 주변을 떠나지 않고, 병수는 혼자 태주를 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태주는 은희 곁을 맴돌며 계속 병수의 주변을 떠나지 않고, 병수는 혼자 태주를 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태주는 은희 곁을 맴돌며 계속 병수의 주변을 떠나지 않고, 병수는 혼자 태주를 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태주는 은희 곁을 맴돌며 계속 병수의 주변을 떠나지 않고, 병수는 혼자 태주를 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태주는 은희 곁을 맴돌며 계속 병수의 주변을 떠나지 않고, 병수는 혼자 태주를 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태주는 은희 곁을 맴돌며 계속 병수의 주변을 떠나지 않고, 병수는 혼자 태주를 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킹스맨 (채널CGV 오후 10시30분)

스파이 액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영화 탄생!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면접이 시작된다! 높은 IQ, 주니어 체조대회 2년 연속 우승!

그러나 학교 중퇴, 해병대 중도 하차. 동네 패싸움에 직장은 가져본 적도 없이 별볼일 없는 루저로 낙인 찍혔던 '그'가 '젠블맨 스파이'로 전직 스카우트됐다!

전설적 배틀링 요원 해리 하트(윌리엄 피츠는 경찰서에 구치된 에그시(테런 애거튼)를 구제한다.

탁월한 잠재력을 알아본 그는 에그시를 전설적 국제 비밀정보기수 '킹스맨' 면접에 참여시킨다.

아버지 또한 '킹스맨'의 촉망 받는 요원이었으나 해리 하트를 살리기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에그시. 복수를 잊어갈 만큼 위험천만한 훈련을 통과해야 하는 킹스맨 후보들.

최종 멤버 발탁을 눈 앞에 둔 에그시는 최고의 악당 발탁인사(사무엘 L. 잭슨)를 마주하게 되는 데...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 감독과 마블 코믹스 인기작가의 만남!

스파이 액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케이블 & 위성 방송

▶YTN (02)398-8000 ▶스카이라이프 1588-3200 ▶한국케이블 TV방송 협회 060-398-3355

영화·오락

스포츠·레저

뉴스·다큐

음악·애니

OCN 8:20 신의 퀴즈리부트 9:40 크리미널 마인드 시즌13 13:00 쿵푸허슬 15:00 프리스트 17:40 신의 퀴즈리부트 19:10 살인자의 기억법 21:40 신의 퀴즈리부트

MBC 스포츠플러스 10:00 2018 리틀야구 올스타전 12:00 엠스플레이리스트 13:00 MBC SPORTS+명승부 일발장타 14:00 볼벌의 명승부 15:00 엠스플레이리스트 17:00 18-19 호주 프로야구 20:00 엠스플레이리스트 22:00 18-19 호주 프로야구

YTN 8:00 뉴스특보 10:00 뉴스특보 12:00 뉴스이슈 14:00 호준사의 뉴스인 16:00 뉴스Q 18:00 뉴스통 19:30 신문의 시사특강 20:15 YTN 21:00 YTN 국민신문고

한국경제TV 6:00 굿모닝 투자의 아침 8:30 출발 중시830 10:00 증시리전 10 12:00 재테크, 알아야 번다 13:00 증시리전 13 15:40 부자권민 만들기 연금술사 16:30 한국경제 이슈N 17:00 성공에감 부동산재테크 18:00 생방송 부동산현장 19:00 보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00 장외주식 시구팔구 21:00 대박 천국

MBC 뮤직 10:40 Show Champion 11:50 피크닉라이브 소풍 12:50 MBC MUSIC HIT SONGS 13:30 대한 외곡인 15:10 쇼 챔피언 비하인드 16:10 주간 아이돌 17:10 엑스트라 TV연예통신 18:10 복면가왕

채널 CGV 8:00 살인의 추억 10:30 테일 오브 테일즈 13:00 사도 15:20 패딩턴 2 17:20 미션 임파서블4 : 고스트 프로토콜 20:00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2 부 22:30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

SBS 스포츠 11:00 2018 LG U+컵 3쿠션 마스터스 14:05 18-19V리그 최고의 세트 15:05 2018 AFF 스즈카컵 10분 하이라이트 16:00 18-19V리그 여자부 18:00 주간배구 다이제스트 18:50 18-19V리그 여자부 21:00 18-19V리그 그남자부

내셔널지오그래픽채널 10:00 건강한아침, 메디칼365 11:00 TV 동물농장 12:15 천 개의 비밀 에메이징 스토리 13:45 <세계 테마 기행>심장이 쾅다, 페루 - 4부 14:45 <익스트림 애니멀> 가장 악랄한 동물TOP10 15:45 포토 아크: 노아의 새로운 방주 16:45 TV 동물농장 19:00 <세계 테마 기행>심장이 쾅다, 페루 - 4부 20:00 아시아헌터

애니맥스 7:00 파워레인저 다이노포스 브레이브 8:00 타일메카닉 W 시즌 9:00 꼬마버스 타요4 10: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2 11:00 레인보우 루비 12:00 몬스터 vs 엘리언 13:00 마음의 소리 14:00 안경 괴물기발 15:00 아들은 너무 이상해 16:00 타오르지마버스터 17:00 포켓몬스터 섀론 18:00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Mnet 8:10 역대 MAMA 베스트 퍼포먼스 9:00 IZONE CHU 10:30 인싸체널 체리블랫 11:30 역대 MAMA 베스트 퍼포먼스 12:30 QT Show 13:30 MPD Music Talk 14:10 썸바디 16:10 역대 MAMA 베스트 퍼포먼스 16:40 IZONE CHU 18:00 MCO UN/DOWN 19:30 QT Show 20:30 Live on M

온스타일 6:10 NEW LIKE IT! STUDIO ONSTYLE 7:00 갓잇뷰티 2018 9:20 갓잇뷰티 2018 10:30 한식대첩-고수대전 12:00 원나잇 푸드트림 스페셜 14:00 갓잇뷰티 2018 15:10 온주의 방 16:10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17:00 갓잇뷰티 2018 18:10 원나잇 푸드트림 스페셜 20:20 원나잇 푸드트림 스페셜 21:30 선다방 23:00 발랄레시유

JEI 재능방송 6:00 유희왕 7:00 파워레인저 다이노포스 브레이브 8:00 파워캐치원더par2 9:00 파워구주대 시즌2 10:00 변신자동차 못말 12기 11:00 출동! 슈퍼왕스 12:00 세서미 스트리트-엘모더 뮤지컬 13:00 치령차링 시크릿 쥬쥬11기 14:00 포켓몬스터 XY 15:00 12명운전자 16:00 농치마정신줄 17:00 예술론 도깨비

OCN 8:20 신의 퀴즈리부트 9:40 크리미널 마인드 시즌13 13:00 쿵푸허슬 15:00 프리스트 17:40 신의 퀴즈리부트 19:10 살인자의 기억법 21:40 신의 퀴즈리부트

MBC 스포츠플러스 10:00 2018 리틀야구 올스타전 12:00 엠스플레이리스트 13:00 MBC SPORTS+명승부 일발장타 14:00 볼벌의 명승부 15:00 엠스플레이리스트 17:00 18-19 호주 프로야구 20:00 엠스플레이리스트 22:00 18-19 호주 프로야구

YTN 8:00 뉴스특보 10:00 뉴스특보 12:00 뉴스이슈 14:00 호준사의 뉴스인 16:00 뉴스Q 18:00 뉴스통 19:30 신문의 시사특강 20:15 YTN 21:00 YTN 국민신문고

MBC 뮤직 10:40 Show Champion 11:50 피크닉라이브 소풍 12:50 MBC MUSIC HIT SONGS 13:30 대한 외곡인 15:10 쇼 챔피언 비하인드 16:10 주간 아이돌 17:10 엑스트라 TV연예통신 18:10 복면가왕

Mnet 8:10 역대 MAMA 베스트 퍼포먼스 9:00 IZONE CHU 10:30 인싸체널 체리블랫 11:30 역대 MAMA 베스트 퍼포먼스 12:30 QT Show 13:30 MPD Music Talk 14:10 썸바디 16:10 역대 MAMA 베스트 퍼포먼스 16:40 IZONE CHU 18:00 MCO UN/DOWN 19:30 QT Show 20:30 Live on M

프로그램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TJB/SBS, CMB, and EBS, listing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대전시립교향악단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연주회

"스산함이 밀려오는 초겨울밤 맛보는 실내악"



대전시립교향악단이 오는 12월 6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대전예술의전당 앙상블홀에서 챔버시리즈 5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연주회를 선보인다.

스페인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피아니스트 베네딕테 팔코가 객원리더로 참여해 대전시립교향악단과 함께 호흡을 맞추어 모차르트, 베토벤, 브람스의 실내악 작품을 연주한다.

특히, 챔버시리즈는 실내악을 통해 대전시립교향악단 단원 개개인의 뛰어난 역량을 집할 수 있어, 대전시향의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시리트로 매회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챔버시리즈 5는 스페인 바스크의 최고 음악기관 뮤직칸의 교수이며 뛰어난 테크닉과 아름다운 음색의 피아니스트 베네딕테 팔코를 객원리더로 초청해 피아노와 함께 하는 실내악 작품의 진수를 선사하기 위해 기획됐다.

객원리더 베네딕테 팔코는 개리 호프만, 필립 그라핀, 루이 클라렛 등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같이 호흡을 맞추고 싶어하는 주목받는 피아니스트로, 뛰어난 테크닉, 아름다운 음색과 벨로디로 알려져 있다.

공연은 모차르트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사장조'로 시작해, '베토벤의 피아노와 관악기를 위한 5중주 내림마장조'가 이어지고, 브람스의 '피아노 4중주 제3번 다단조' '베르테르'로 공연의 대미를 장식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고전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 모차르트, 고전과 낭만을 가교하는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리고 낭만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 브람스의 곡까지 감상할 수 있어, 고전시대부터 낭만시대까지 각 시대별 작품의 특성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객원리더 베네딕테 팔코와 대전시향과의 연주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만남에서 어떤 하모니를 선보일지 주목받고 있다.

모차르트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사장조>는 비엔나 소나타 가운데 유일하게 2악장으로 구성된 소나타로, 모차르트 특유의 고전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소나타다. 이어서 연주되는 곡 <베토벤의 피아노와 관악기를 위한 5중주 내림마장조>는 보기 드문 편성의 실내악 곡으로 피아노,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호른으로 구성되어 있다. 4가지 관악기와 피아노의 다양한 음색과 조화를 맛볼 수 있는 곡이다.

이번 연주회의 대미를 장식하는 곡은 브람스의 <피아노 4중주 제3번 다단조>로 일명 '베르테르'로 불린다. 독일 문학 최초로 세계문학의 변천에 오른 작품인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영감을 얻어 브람스가 작곡한 곡이다.

연주회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립교향악단 홈페이지 (www.dpo.or.kr)를 참조하거나 전화 (042-270-8382-8)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희기자

학부모뉴스24, 창간5주년 기념 도래도래 북콘서트

기념 도래도래 북콘서트



학부모뉴스24(발행인 채재학)는 29일 오후 2시20분 대전괴정중학교 교장 심기창에서 창간5주년 기념 도래도래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국내 유일하게 학부모들이 만드는 신문 학부모뉴스24는 교육전문 인터넷신문으로 전국적인 취재망으로 독일 문학 최초로 세계문학의 변천에 오른 작품인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영감을 얻어 브람스가 작곡한 곡이다.

연주회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립교향악단 홈페이지 (www.dpo.or.kr)를 참조하거나 전화 (042-270-8382-8)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희기자

공주도서관, 2019학년도 예비대학생 및 학부모 특강

'너의 선택을 존중해' 진로 고민 해결 위한 특별한 시간



공주도서관관장 박찬희는 지난 22일과 27일 공주영명고등학교 3학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너의 선택을 존중해' 특강을 운영했다.

2019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공주영명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대상으로 '유럽 테마 여행' 김지선 작가의 꿈을 이루었던 과정 이야기로 강연을 진행했으며, 그동안 자녀들을 위해 고생하신 학부모를 대상으로는 조아를 메이크업아티스트

박찬희 관장은 "공주도서관은 2018년 수능준비로 인해 고생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 준비한 다양한 행사들로 수험생 및 학부모와 함께하는 위트가 되고 따뜻한 연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성범기자



부여도서관, 작지만 알찬 도서관 나들이 부여교육지원청 부여도서관(관장 김영심)은 27일 양화초등학교 2학년 학생 4명과 인솔교사가 도서관을 방문하여 도서관 이용 모습 그려보기, 레진아트책갈피 만들기 등 도서관 구석구석 알찬 체험 진행했다.

송병배기자



대전과학기술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와 업무협약
대전과학기술대학교(총장 이효인)는 28일 혜천관 2층 회의실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회장 김양수)와 상호 협력 및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거행하였다.



NH농협은행 당진시지부, 장애인복지관에 쌀 전달
NH농협은행 당진시지부(지부장 이석우)는 지난 27일 해나루쌀 70포를 어려운 이웃과 장애인들에게 사용에 달라며 당진시 장애인복지관에 전달했다.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리더 역량강화'
청양군마을만들기협의회(회장 황준환)는 지난 27일 화성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위원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위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사업계획 및 모범시 마을만들기협의회 운영사례에 대한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아산시부신용협동조합, 도고면에 '온(溫)세상 나눔캠페인'
아산시부신용협동조합(이사장 김한규)이 지난 27일, 도고면 행복키움추진단(단장 이영인)에 연말이웃사랑 나눔캠페인 일환으로 백미(10kg) 41포와 이물 12채를 후원했다. 이날 아산시부신용협동조합 임·직원과 행복키움추진단장, 이준찬 도고면장이 함께 관내 저소득 가정 3곳을 방문해 후원물품을 직접 전달했다.



백석대·백석문화대, G&M글로벌문화재단 문예관 대표 초청 북콘서트
백석대학교(총장 장종현)·백석문화대학교 도서관은 11월 27일(화) 오후 2시, 교내 도서관 6층 원격화상강의실에서 G&M글로벌문화재단 문예관 대표를 초청해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서산시성연면 주민자치위원회, 청양읍 주민자치회 방문
청양읍 청양읍읍장이영호에서 주민자치 활성화 및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정난감 은행' 사업을 견학하기 위해 지난 26일 서산시성연면 주민자치위원회 및 관계 공무원 등이 방문했다.

대전대학교 물리치료학과 졸업생 김대훈 씨

미국 물리치료사 면허 시험 합격



미국에서도 취득하기 까다롭다는 물리치료사 면허 시험을 대전대 물리치료학과에서 3명이나 배출해 화제다. 28일 대전대학교(총장 이종서) 물리치료학과과장 최종덕 교수에 따르면 졸업생인 08학번 김대훈(32)씨가 최근 미국 뉴욕주의 물리치료사 면허 시험에 합격했

다. 지난 2012년 졸업한 김 씨는 대전대 보건의료대학원에서 정형외과수술물리치료전공 석사학위를 취득하며 꾸준히 면허 시험에 도전했다. 그는 학부 및 대학원과정 기간에는 외국인 대상의 미국물리치료사 응시자격 평가를 받는 성적평가 기준(CWT6)에 부합하는 등 자격 조건을 모두 갖췄으며 두바이 물리치료사 면허 시험 준비기간까지 포함, 총 12개월간 면허

시험에 몰두했다. 특히 최근 미국 뉴욕주 물리치료사 평가기준인 FCCPT까지 통과한 김 씨는 단 한 번의 시험 응시로 면허시험에 합격하는 쾌거를 안았다. 물리치료학과에 따르면 미국에서의 물리치료사는 고소득 연봉을 보장하는 직업으로 직업에 대한 만족도 또한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김대훈 동문은 "재학기간 내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교과과정

이 있었기에 미국 물리치료사 면허시험에 응시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며 "열심히 준비한 만큼 미국에서 인정받는 물리치료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대 물리치료학과에서는 김대훈 씨 외 장현정, 배성국 씨까지 총 3명의 졸업생이 미국 물리치료사 면허 시험을 합격한 바 있다.

김정환기자

한국영성대학교 이벤트

연출과 연극과 토크쇼 개최



한국영성대학교(총장 유재원) 이벤트연출과 공연창작동아리 학생들이 연극 '루피너스'를 개최한다.

이 공연은 28일부터 29일까지 오후 7시 본교 창의관 4408호에서 진행되며 무료로 입장 가능하고, 한국영성대학교 이벤트연출과가 주최하고 이벤트연출과 공연창작동아리 '배우다'가 주관한다.

연극 '루피너스'는 가정폭력에 저항할 힘없는 아이들이 겪을 고통과 가정폭력을 당한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삶을 보여주며 그 고통의 원인과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학생연극이다. 공연을 기획한 공연창작동아리 '배우다'는 "기획·연출에 관심 있는 재학생들이 모여 직접 각본·기획·연출한 작품으로 한국영성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기 위해 기획했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그리고 이벤트연출과 동아리 MIC는 학업과 일상, 과제로 지쳐있는 학생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버스킹 토크쇼 'K vs R'을 오는 12월 3일 오후 6시 본관 시청각실에서 개최한다.

정성범기자



국제라이온스협회 356-B지구

2018 평화포스터 경연대회 개최

국제라이온스협회 356-B지구(총재 김홍호)는 11월 28일 지구회관에서 2018. 평화포스터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정연지 학생(대전초 5학년)의 작품을 비롯한 총 16 작품을 선정하였다. 이번 대회는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라이온스에서 지향하는 평화의 의미를 그림을 통해

널리 알리고자 하는 범세계적 라이온스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금회기는 "연제나 진찰하게"를 대회주제로 정하여, 제출된 초등학생의 작품을 대상으로 주관 위원회를 통해 선정하였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12월 24일 오후 3시 대전시 교육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정환기자

'한누리봉사단'·'이웃사랑나눔회'

현대제철 봉사동호회 사랑의 온정 전달



현대제철 봉사동호회인 '한누리봉사단'과 '이웃사랑나눔회'는 지난 27일 당진 지역 에너지 빈곤층 30가구를 선정해 가정용 난방유 420리터와 연탄 2700장을 전달했다.

한누리봉사단 이인성 기장은 "추운 겨울에 지역 이웃들이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기획했다"며, "선물한 난방용품으로 지역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마음에도 여유가 생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아산시녹색어머니연합회

'나눔봉사 일일찾집' 성황리 열려



아산시녹색어머니연합회(회장 강선영)가 지난 27일, 아산터미널 웨딩홀에서 나눔봉사 일일찾집을 열었다. 11,5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아산시녹색어머니회는 초등학교 주변에서 매일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질서 지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각종 행사 교통질서 근무, 교통안전캠페인, 교통사고 줄이기, 시민 안전문화 캠페인 등의 활동을 펼쳐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다양한 음료와 다과를 제공하며 이웃 사랑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매년 열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현 아산시장을 비롯해 관내 초·중·고 관계자, 자모회, 운영위원, 아산시 기관·단체 관계자 등 2000여명이 참여했다. 강선영 회장은 "나눔 봉사 일일찾집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보내준 모든 분들의 관심과 사랑에 보답하고자 회원 모두가 더 열심히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과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산=리광주기자

조폐공사 '결핵퇴치 우수기관' 선정

결핵 퇴치 기여 인정, 결핵협회로부터 현판 전달 받아

한국조폐공사(사장 조용만, www.komsco.com)는 결핵 퇴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8일 대한결핵협회로부터 '결핵퇴치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현판을 전달받았다.

다. 조폐공사는 2008년부터 꾸준히 크리스마스 씬 판매를 통해 결핵 퇴치 모금운동을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아 대전 지역 최초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조폐공사는 올해에도 본사를 포함해 회계본부·제지본부·ID본부·기술연구원 등 5개 기관의 직원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결핵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다.

송병배기자



공주시 행복나눔자원봉사클럽, 사랑의 연탄 전달
공주시청 퇴직공무원 모임인 행복나눔자원봉사클럽(회장 양승일)과 봉사동지들이 목거머리길정에 연탄을 전달해 화제다. 회원들은 지난 26일 봉사동지에 거주하는 한 모(91세, 여) 어르신 가정에 신풍건설에서 후원한 연탄 300장을 직접 배달했다.



예산군, 신임면주민자치위원회, 이웃돕기성금 전달
신임면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병운)가 28일(수) 행정복지센터에서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웃돕기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용분 총북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훈장 협동장 수상



이용분 충청북도새마을부녀회장이 지난 27일 새마을중앙연수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2018 중앙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새마을훈장 협동장을 수상했다.

새마을운동중앙회(회장 정성현)가 주최한 이날 대회는 2018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 및 2018 중앙새마을지도자대회가 병행해 개최됐으며 '생명살림, 평화나눔 지속가능한 생명사회를 향하여'란 슬로건으로 29일까지 개최되는 2018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에 세계 각국 500여명 지도자들이 참여했으며 의식행사, 포상, 우수사례발표, 표기조직원 등으로 진행됐다.

이 부녀회장은 1973년부터 현재까지 40여년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노력했으며 이웃사랑 운동을 몸소 실천하는 봉사자로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을 하게 됐다.

송병배기자



기고

소방차 길터주기, 생명 살리는 지름길



노중복 천안서북소방서장

소방차량은 온갖 사건사고 현장에 분과 초를 다루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도로위의 수많은 차량을 피해 재난현장으로 출동하는 차량이다. 천안시 차량등록대수는 15년 10월 기준 26만대8천대에서 18년 10월까지 31만대3천대로 연평균 약 5.5% 증가 되었으며 소방차 출동여건은 날로 악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상가 밀집 지역 및 주택가 이면도로나 골목은 말할 것도 없고 아파트 주차장에도 자동차들이 무질서하게 주차돼 신속하게 출동하여야 할 소방차에 도로에 갇혀있고 좁은 골목길에서는 오토기도 못하고 울음 섞인 사이렌만 울린다. 소방통로 확보는 곧 생명과 직결

된다고 볼 수 있다. 응급환자에게는 4-6분이 골든타임이다. 즉 심정지 또는 호흡곤란 환자는 4-6분 이내에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시 뇌손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정상인으로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 또 화재 시에는 소방차량이 5분 이내에 현장 도착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5분이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 확대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급격하게 증가한다. 천안서북소방서의 올해 골든타임 내 소방차 도착률은 10월 기준 71.9%로('16년 83.1%, '17년 77.3%) 매년 감소 추세로 빨리 도착하기 위한 방편으로 소방에서는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 유관기관

합동 불법 주차차 단속,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단속, 소방통로 확보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최근 법령 개정으로 2018년 6월 27일부터 소방차 진로방해 시 과태료 100만원 이 부과되지만, 과태료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남의 사고가 아닌 내 집, 내 이웃의 사고'라는 마음으로 각종 긴급차량을 만나면 우측가장자리로 양보해 주고 자신의 편의를 위해 소방차와 소방차 사이에 끼어들어 주행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 이시간에도 소방차량의 급박한 사이렌은 꺼져가는 한 생명의 절실한 울음인 만큼 신속한 현장 도착과 진압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할 것이다.

누구나 한번쯤은 소방차나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복잡한 차량들 사이를 피해 다니며 출동하는 현장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긴급

기고

병무행정! 얼마나 더 똑똑해 질까?



김태하 병무청 차장

등 다양한 서비스들이 낮설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병무청의 주요고객은 IT기기를 능숙하게 다루는 젊은 세대들이다. 젊은 세대들은 전통적인 매체인 TV나 PC보다는 모바일을 통해 소통하며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선호한다. 이들은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호기심과 편리함의 대상으로 바라본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원유라 불리는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병무청은 방대한 병역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모바일을 통한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지난 '15년 정보화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였다. 삼십 여 년간 축적된 방대한 병역자료는 데이터 품질관리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한 이후 민간에 개방된다. 민간의 우수한 기술과 병역정보가 결합되어 수준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병무청은 병역정보의 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병무청은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

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지방스럽게 병역을 이행하고자 하는 청년 고객들을 위한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는 병역이행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위치와 장소의 제약이 따르는 PC기반의 서비스를 이동성이 활발한 청년층을 위한 모바일 서비스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이미 운영 중에 있는 민원신청은 물론 각종 통지서를 모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병무청 앱과 통지서 송달 서비스는 연내에 구축을 완료하고 '19년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이와 더불어, 24시간 365일 중단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과 복잡한 민원을 사람과 대화하듯이 대화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민원 상담 및 신청 챗봇 시스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이렇게 도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한 이유는 병무청이 보유한 정보화역량과 자체적으로 민원상담소를 운영한 풍부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서비스는 대화형 민원 챗봇이 대체함으로써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이고 고객들의 고민 해결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 할 수 있게 된다. 대화형 서비스는 챗봇을 선호하는 젊은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축적된 기술들은 향후 병무행정을 지능화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며 인공지능이 꽃을 피울 2025년경에는 보다 나은 서비스와 업무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병무청은 더 젊고 역동적이 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젊고 도전적인 청년들을 고객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 보다 더 젊은 생각을 갖지 않고서야 어떻게 감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는가?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 속에 있다. 거센 물결을 헤쳐 나가며 병무행정 서비스는 보다 더 똑똑하고 세련되어 갈 것이다. 똑똑함을 뛰어넘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그 날까지 병무청의 모든 직원들은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드린다.

불과 몇 년 전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세기의 대결로부터 촉발된 인공지능의 관심과 열기는 어느덧 우리 곁에 친숙하게 다가와 있다. 얼마 전 타계한 천재적 물리학자 인스티븐 호킹 박사는 인공지능이 인류보다 빠르게 진화할 것이며 결국 인류를 멸망케 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인공지능을 활용한 추천 서비스, 실시간 번역, 인공지능 스피커

기고

안전벨트 착용은 생명의 원천



방준호 서산경찰서 생활질서계장 경위

착용의무화이다. 개정 전에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주행할 때에만 전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하였으나 반대로 일반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앞좌석 탑승자만 안전벨트를 착용해도 괜찮았다. 2017년 통계에 따르면 앞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사람들은 80%로 높은 반면 뒷좌석에 탑승자 중 안전벨트를 착용한 사람은 14%로 극히 미약하다는 통계가 집계되었다. 아마도 뒷좌석이 앞좌석보다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 탑승자에게 차의 진행방향이 직접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다고 여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뒷좌석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 앞좌석은

에어백이 있거나 안전벨트가 있는 등으로 안전장치가 이중으로 있는 반면에 뒷좌석에 있는 안전장치는 안전벨트 하나뿐이다. 사고가 났을 때 뒷자리에 탄 사람이 앞자리에 탄 사람보다 더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해주면 앞좌석 승차자도 안전해진다라는 것이다. 차량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앞으로 휩쓸렸을 때 차장, 전장 등의 딱딱한 부분에 부딪히거나 어찌면 앞좌석 시트에 거세게 부딪히면서 운전자에게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사례로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전진국인 호주, 독일, 일본에서는 1970년대부

터 일찌감치 뒷좌석의 안전을 생각하여,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 하였다. 현재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2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지금도 뒷좌석 안전띠를 끼얹고 답답하기 때문에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교통사고는 언제 어는 때, 시간을 정해놓고 발생하지 않는다. 나만이 아닌, 앞좌석에 함께 탑승한 동승자의 피해를 줄이려면 뒷좌석 안전벨트를 꼭 착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 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법규를 준수해 나갈 때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가 될지 않을까 필자는 생각하는 바이다.

2018년 9월 28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뒷좌석을 포함, 전 좌석 안전벨트

사설

정부의 여성정책 · 공약 지켜야

‘메미니스트’를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의 여성 · 성평등공약은 임기 내 성비 동수 내각 구성, 스톱갭 · 데이트폭력 등 여성폭력 국가행동 계획 수립, 성별임금격차의 OECD 평균수준 15%까지 완화, 동일가치 · 노동의 동일임금 법제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40% 확대,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 출산수당 제공, 여성청년고용 의무화 등 확대, 젠더폭력방지전담기구 설치, 진주성폭력처벌 강화, 성평등인권교육의 공공육 포함 등이다.

이들 중 정부가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임기 중이긴 하지만, 집권 초반을 넘긴 현재 공약이행률이 낮은 것은 위험신호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불법 성범죄 영상물 대책을 대통령의 10대 공약으로까지 내세웠다. 당시 정책 제안을 접수한 결과, 디지털 성범죄를 엄단해 달라는 요구가 1400여 건에 달했다고 한다. 정부의 약속대로라면 보복성 성범죄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퍼뜨린 자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되며, 유동 사이트는 전수조사를 통해 폐쇄 되어야 했다.

그러나 불법 영상물 유통의 주범인 웹하드 업체를 운영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만 본보기 정도로 구속했을 뿐, 여전히 여성들은 일상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야 한다.

정부의 수수방관 속에 지금도 피해 여성 중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초 불발기 시작한 미투운동도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사회 각 분야 남성 권력자들의 성폭력 발본이 기대되었지만, 정부의 미온적인 후속 대처 이후 여성들은 거센 역풍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여성 정책을 당장 어떻게 펼쳐야 하는지는 이미 문 대통령의 공약속에 나와 있다. 약속을 실천에 옮기면 된다.

현재 대한민국 여성들이 겪고 있는 피해는 미미한 여성 인권 개선이나 여성이 이전처럼 피해자 되기를 거부하는 등 사회 변화에 대한 남성 사회의 조직적인 반격에 해당한다. 성평등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때가 지금이다.

시 · 도교육청과 함께 평화 · 통일교육 활성화 추진

교육부, 평화 · 공존의 관점으로 교과서 보완, 핵심교원 학교현장지원단 신설

교육부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학교 평화 · 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을 11월 28일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은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평화와 공존의 관점과 변화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미래 세대의 통일 역량을 키우고 평화 ·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①수업사례 공모방식(bottom-up)으로 교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② ‘학교 평화 · 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의 주요 내용은 ▲교육과정 내 평화통일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보완하고, 교수 · 학습 콘텐츠 개발을 추진한다.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학생의 평화통일 공감대를 확산한다. 우선 평화 · 통일교육 교원 집중연수를 통해 양성된 핵심교원(170명)으로 시 · 도교육청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학교 컨설팅과 시 · 도교육청의 평화 · 통일교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 · 도별로 추진하는 특강, 평화기행, 체험연수 등 현장 맞춤형 평화통일 교원 연수를 지원하고 우수 연수 프로그램은 성과보고회를 통해 상호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그간 한국과 독일 교원 교류를 통해 평화통일 사례를 공유하던 경험을 북이탈랜드, 발칸 등으로 확대하여 김등과 분등 지역의 평화 교육과정, 사회통합 사례를 주제로 세미나, 포럼, 체험 활동 등을 통해 교원의 전문성을 높인다. 학생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학교 학생 통일 동아리 활동을 확대 · 지원하고, 한국 · 독일 학생 교류, 동북아 평화체험 등 학생 해외체험 활동을 처음으로 추진하는 등 다양한 학생 참여 활동으로 차세대 통일 리더 양성에 힘쓴다. ▲소통 · 협업 · 자치의 거버넌스를 확대하여 시 · 도교육청, 통일부·통일교육원, 유관기관과 함께 학교 평화 · 통일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이상수 사진작가, 충남대병원에 소아환자 의료지원 2백만원 기부
이상수 사진작가가 지난 27일 충남대학교병원 소아환자의료지원을 위해 200만원을 기부했다. 이상수 작가는 지난 3월부터 12월 까지 열흘간 대전 대충동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교씨교씨>에서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중인 소아환자들을 돕기 위한 ‘사진으로 꽃을 품다’ 사진전을 열고, 전시를 통해 모인 후원금을 충남대학교병원 사회사업팀에 전달했다.

대전 · 세종 · 충남 수출클럽 협업으로 통합포럼

상호간 교류 활성화 및 수출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으로 큰 호응

대전 ·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범수)은 지난 27일 유성호텔에서 대전 · 충남Kotia지원단(단장 여성일)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 · 세종본부(본부장 유정욱)와 공동으로 대전 · 세종 · 충남 수출클럽 통합포럼을 개최했다.

통합포럼은 지역 3개 수출클럽이 협업해 수출성공기업과 초·중·고기업간 교류로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계기 마련과 지역 중소기업 수출활성화를 위해 개최했다. 특히, 이번 포럼은 Kotia 일본 도쿄 무역관과 실시간 화상으로 연결해 생

생한 일본시장동향과 우리 중소기업의 품목별 현지 시장진출방안 제시 및 JIS인증(일본공업규격) 획득방법 등을 안내해 기업별 현지 시장진출전략 마련에 도움을 주었으며, UN산업개발기구 한국투자진흥사무소대표 두정수와 함께 재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및 재한 미얀마 대사관의 상무관을 초청, 현지 시장 동향 설명회와

자진출 전략 제시 및 상호간 교류로 참여 기업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윤범수 청장은 “2019년에는 무역기업인협의회와도 연계해 4개 클럽으로 확대하고 분기별로 통합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라며, “수출성공사례 공유, 해외시장전문가 초청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를 도모해 지역 수출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병배 기자

*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大田투데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2006년 5월 17일 창간
 발행·편집인 김현정 회장 김성구 논설위원 조정호
 전화내선 042)538-3030 기사제보 042)538-1601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매달내선 042)538-1602 광고신청내선 042)538-1603 구독료 월1만3000원 1부 700원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63-2 ☎ 02)6406-5921 팩스 02)392-5143
 인쇄처 : 동양인쇄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DT 대전투데이 연중 환경 캠페인

지구를 살립시다!



‘지구 온난화’ 지금 멈추지 못하면, 우리들의 **내일**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주 관 | DT 대전투데이 DTN 대전투데이

후 원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전지사 한국전력공사 대전충남본부 KHFC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충남지사 DS 주식회사 대생리글린 대표이사 MANNIEN DIEN CHRISTOPHER KR 한국농어촌공사 기술본부 AT 농수산물유통공사 대전충남지사 대전광역시교육청